

# 북·중무역의 현황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영 훈\*

이 연구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  
는 집필자를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동북아경제연구실 과장  
(02-759-5399, [yhlee@bok.or.kr](mailto:yhlee@bok.or.kr))

본 연구과정에서 유익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안예홍 동북아경제연구실장, 문성민 차장, 이동욱 과장, 연구심의위원회 위원(전승철 국제경제연구실장, 유경원 박사, 노용환 박사), 원내 세미나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자료정리를 도와준 김유진 연구원께 감사드린다.

## <차 례>

I. 서론 .....	2
II. 북·중무역 추이 .....	3
1. 현황 .....	3
2. 추세적 특징 .....	7
III. 북·중무역 구조 .....	9
1. 현황 .....	9
2. 구조적 특징 .....	17
IV. 북·중무역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29
1.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29
2. 시장경제화 진전에 미치는 영향 .....	35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43
<부록 1> 북·중무역 관련 주요 통계 .....	46
<참고문헌> .....	58

# 북·중무역의 현황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북한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과 시장경제화 진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북·중무역은 2000년 이후 매년 약 30%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여 2004년에는 북한 전체무역의 39%를 차지하였다. 그 결과 북·중무역의 증가는 2000년 이후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매년 약 3.5%포인트 이상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북·중무역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부(負)의 성장을 계속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중무역은 중국산 물품들이 북한 시장거래의 약 80%를 점할 정도로 시장경제 확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재정의 고갈로 인해 과거에는 무역에 종사하지 않던 기업과 기관들마저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게 되었고, 국가상점망의 와해로 인해 이들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들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중무역은 북한의 중국(특히 동북3성)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중국상품의 저렴한 가격, 지리적 인접성, 관세감면 혜택 등의 이점에 기인한다. 최근 중국의 대북무역 및 투자 확대는 중국의 의도적인 정책의 결과라기보다 이러한 이점들을 배경으로 한 중국 경제성장의 자연스런 결과로 보아야 한다. 향후 중국의 고성장은 무역과 투자를 통해 북한의 경제회복과 시장화를 촉진하는 반면 대중국 의존도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북·중무역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대북 경제봉쇄와 같은 대북 억압정책은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여 남북경협 방향과 실천방안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중국간의 높은 상호 경제의존도를 활용하여 한국-북한-중국 3자간 상호이익 증대를 위한 경협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핵심주제어: 북·중무역, 북한의 경제성장, 북한의 시장화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F1, O1, P2

## I. 서 론

북한의 중국과의 무역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북한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왔고 특히 2000년 이후에는 평균 증가율이 약 30%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2004년도 북·중무역은 남북교역을 포함한 북한 총무역의 약 40%를 차지하여 북한의 제2의 무역상대인 남한과의 교역에 비해 2배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북한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약 80%가 중국산이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북·중무역의 영향을 말해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는 아직 무역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최근 중국의 대북투자가 2003년 130만달러에서 2004년 약 5,000만 달러로 급증하여 북한에 대한 투자 가운데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는 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북한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이 북한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90년 이후 특히 북·중무역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북·중무역의 추이 및 구조 현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북·중무역의 특징을 추출한 후, 북·중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과 시장경제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무역은 지나치게 적자를 유발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국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되어 왔다. 수출은 산업전반에 생산유발, 고용창출, 기술축적 등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수입을 가능케 하며, 수입은 양질의 자본재 및 선진기술을 확보하게 하고 수입상품의 소비를 통해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후진국에서처럼 최소한의 자본재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반이론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1차상품 위주의 수출은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손실이 경제성

장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초과하는 ‘궁핍화성장’(immiserizing growth)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런데 북한은 무역적자 폭도 클 뿐만 아니라 외화부족으로 자본재를 충분히 수입할 수 없는데다 1차상품 위주의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북·중무역이 북한경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속단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무역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이상의 문제들을 무역통계, 현지조사, 그리고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검토해나갈 것이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량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 II. 북·중무역 추이

### 1. 현황

#### (북·중무역 변동의 정치적 배경)

1990년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 및 전지구적 시장화로 인해 전반적인 무역환경은 크게 바뀌었다. 중국과의 무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1990년대 들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주던 중소분쟁이 청산되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실리주의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사회주의우호가격제와 구상무역을 없애는 동시에 경화결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거래의 주체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바뀌었다. 더욱이 1992년 8월 한중수교가 이루어지면서 북·중관계는 냉각기로 접어들었다. 그 결과 북한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과 안정적인 ‘치순관계(齒脣關係)’가 유지되길 원하는 중국으로서<sup>1)</sup> 북한경제의 붕괴가 중국에도 이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들의 대북한 영향력 강화에 대응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자극한 것은 1994년 북·미간 제네바협정과 1995년 남한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한 원조 개시 등 북한과의 관계개선의 조짐이다. 이에 대북한 영향력 축소를 우려한 중국은 1996년부터 대북원조를 재개하고 1992년 북한에 대해 폐지되었던 ‘우호가격제’를 1996년 부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996년 5월 홍성남 총리가 북경을 방문했을 때 향후 5년간의 대북원조 내용을 담은 ‘경제기술합작협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후 북한은 1997년 10월 김정일이 당 총비서로 추대된 이후 적극적으로 체제를 재정비해 나갔는데,<sup>2)</sup> 때 마침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발표, 1998년 6월 정주영 현대회장의 소몰이 방북, 1998년 11월 금강산관광 첫출항 등으로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대외환경이 크게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곧 이어 북·중관계도 복원되기 시작했고, 1999년 6월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는 전략적 협력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2000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2001년 9월 중국의 강택민 국가주석 겸 당총서기의 방북은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처럼 1990년 이후 북·중관계는 1996년과 1999년, 특히 1999년을 계기로 크게 진전되었는데, 여기에는 주변국들의 대북한 관계 변화 속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 노력과 이를 이용해 경제위기를 타개하려는 북한의 이해가 북·중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쳐왔다.

- 
- 1)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경제적 측면보다 지정학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정치군사적 요인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은 북·중 및 북·일무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반도가 갖는 지정학적 특징에 기인하는데, 오랜 기간 중국과 일본 모두 한반도를 세력확장의 교두보로서 자신의 영향권 하에 두려고 각축을 벌여왔으며, 이러한 갈등은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한 1990년대 들어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 2) 김정일은 노동당총비서로 추대되고 나서(1997.10), 선군정치 표방, 권력구조의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체제를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 (북·중 무역의 추이)

1990년 이후 북·중무역의 추이를 보면, 1999년을 전후로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90~99년 기간 북·중무역 규모는 부침을 보이면서도 1999년 무역규모는 1990년의 수준과 거의 같은 반면, 2000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2000년 이전 시기와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0~99년 기간 변화를 보면, 1993년까지의 북·중무역 증가는 1992년 중국의 경화결제 요구와 한·중수교 등 양국관계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무역감소를 중국과의 무역으로 대체한 데 따른 것이다. 1994년 이후의 감소는 중국의 경기조절, 북한의 채무불이행 증가로 인한 중국 무역상사들의 거래 기피 등에 의한 것이다.<sup>3)</sup> 1997년의 일시적 증가는 1996년 북한 홍성남 총리의 방중과 그에 따른 무상지원, 그리고 우호가격의 부활 등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1998년에 이어 1999년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시아경제위기로 북한 전체 무역이 줄면서 북한 생산에 악영향을 준데다 북한상품의 취약한 경쟁력으로 인한 거래 부진과 전기사정 악화로 인한 철도수송의 정체 등에 기인한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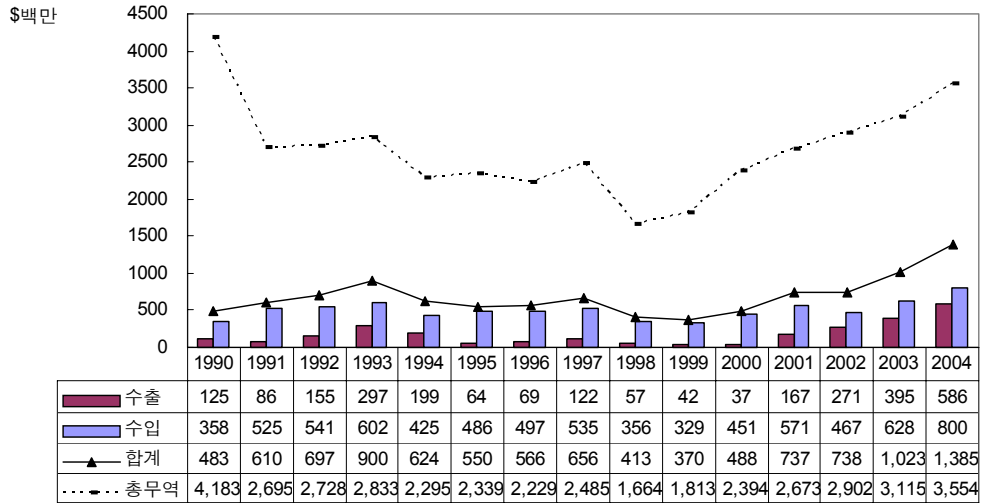
2000년 이후 북·중무역이 급증하는 추세는 양국관계의 개선에 따른 대북지원의 확대와 북한의 광물 등 1차상품에 대한 중국의 수요증대, 중국의 남북교역 중계지로서 기능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2002년의 일시적인 부진은 북한의 외환부족으로 식량, 광물성 연료 등 주요 물자수입 감소에 기인한다. 또한 2003년 이후 북·중무역 증가는 북한의 대일무역 조건의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2002년 불거진 일본인 납치 문제, 핵문제, 대북수출입상품검사 및 북한 선박의 입항검사 강화 등이 악영향을 미치면서 북한의 대일 주력 상품인 수산물과 의류제품의 수출이 중국이나 한국으로 일부 전

3) KOTRA, 『1990-2000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1. p. 47.

4) KOTRA, “1999년 북한-중국간 교역 10.3% 감소”, 2000.7 (www.globalwindow.org)

환된 데 따른 것이다.

<그림 2-1> 북한의 총무역 및 대 중국무역 추이



출처: 中國海關統計;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호5)

요컨대 중국은 1991년 이후 북한의 제1의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0년 이후 양국간 무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4년도 중국과의 무역규모는 북한의 두 번째 무역상대국인 남한과의 교역규모의 약 2배에 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북·중무역을 북한의 전체 무역과 비교해 보면, 2004년도 전체무역은 1990년의 무역규모를 회복하지 못한 반면 2004년도 북·중무역은 1990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북한의 전체 무역이 북한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던 1990~98년 기간에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였던 반면 북·중무역은 증가 또는 정체를 보였다.

5) KOTRA와 한국무역협회(KITA)가 제시하는 통계 중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은 KOTRA의 통계를 따랐음.



## 2. 추세적 특징

### (대중국 무역의존도 증가)

북·중무역이 남북교역을 포함한 북한의 총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1.5%에서 2004년 39.0%로 증가했으며 특히 2000년 이후 그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2000~04년 남북교역을 포함한 전체 무역이 1,160백만달러 증가했는데, 그중 북·중무역의 증가분은 889백만달러로 전체의 77%를 차지할 만큼 2000년 이후 북한 전체무역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주요 무역상대국의 무역비중 변화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표 2-1> 북한의 주요무역상대국의 무역비중

(%)

	1990	1992	1994	1996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중 국	11.5	25.5	27.2	25.4	24.8	20.4	20.4	27.6	25.4	32.8	39.0
한 국	0.3	6.3	8.5	11.3	13.3	18.4	17.8	15.1	22.1	23.2	19.6
태 국	1.0	0.3	0.6	1.5	0.7	2.1	8.7	4.9	7.5	8.2	9.3
일 본	11.4	17.6	21.5	23.2	23.7	19.3	19.4	17.8	12.7	8.5	7.1
러시아	53.1	12.5	6.1	2.9	3.9	2.8	1.9	2.5	2.8	3.8	6.0
기 타	22.6	37.6	36.2	35.7	33.5	37.1	31.9	32.2	29.4	23.5	19.0

출처: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호

보다 구체적으로 2001년 이후 북한 총무역에서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입 비중 변화를 보면 수입비중보다 수출비중이 현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북한에서 수입한 물품을 제3국에 되파는 중국의 보세무역이 급격히 증가한데 기인한다. 그에 따라 최근 적자폭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표 2-2> 북·중무역의 북한 총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

	1990	1992	1994	1996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수 출	7.1	14.2	19.3	7.6	8.8	6.5	5.3	20.2	26.9	37.1	45.8
수 입	14.7	33.1	33.7	37.7	35.1	27.9	26.7	30.9	24.7	30.6	35.1
수출입계	11.5	25.5	27.2	25.4	24.8	20.4	20.4	27.6	25.4	32.8	39.0

출처: 中國海關統計;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호

요컨대 경제난으로 북한 자체의 공급이 크게 감소하여 생산과 유통의 자기완결적인 자립적 재생산구조는 크게 와해되었고 무역이 확대되면서 대외 의존적 구조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이유)

이처럼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중국상품의 가격경쟁력, 지리적 요인, 변경무역의 세제 감면 혜택, 그리고 북·일관계의 악화와 핵 문제로 인한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중국에의 의존강화 등의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정치외교적 요인은 이미 많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중국 상품의 생산가격이 일본, 남한, 태국, 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들 국가 중 국민소득 수준이 중국 다음으로 가장 낮은 태국과 제조업 시간당 평균노동비용을 비교해 보면, 중국은 2000년 0.59달러, 2003년 0.92달러인 반면 태국은 2000년 1.10달러 2003년 1.20달러이다.<sup>6)</sup> 둘째는 거리의 인접성에 있어 중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북한처럼 값싼 1차상품의 경우 수송비가 높게 되면 수입 유인이 크게 감소한다. 셋째, 중국이 변경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수입관세를 50% 감면해주는 혜택으로 인해 요녕성 및 길림성의 북한과의 무역규모가 매우 크며, 여기에 흑룡강성까지 합한 동북3성의 무역규모는 남북교역을 증가하는 수준이다.

6) Economic Intelligence Unit

### III. 북·중무역 구조

#### 1. 현황

##### 가. 북한의 수출구조

##### (상품별 구조)

최근 북한 총수출의 주된 특징을 보면, 거의 대부분 어패류로 구성된 동물제품의 수출이 급증하여 북한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아연, 연, 철강 등의 비(卑)금속류<sup>7)</sup>와 무연탄 등의 광물성 생산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부록 <부표 1> 참조). 이들 주요 품목의 가장 큰 수출대상국은 중국이다.<sup>8)</sup>

1998~2004년 기간의 대중국 수출상품구조 현황을 HS 2자리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중국 수출품목은 어패류이다. 어패류는 2001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대중국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2004년 44.9%로 최근 대중국 수출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철강, 광, 광물성연료, 아연과 그 제품, 목재 등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가공하지 않은 1차생산물이거나 낮은 가공단계의 생산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철강의 수출은 전반적으로 급증했는데, ‘선철’과 ‘재용해용 파철’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외 불순물의 함유량이 많은 탄소강이 주를 이루고 있다.<sup>9)</sup> 그 밖의 아연,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들의 경

7) 귀금속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변질되기 쉬우므로 구조재료로 쓰이지 않지만, 아연이나 알루미늄 등은 순도를 높이면 훨씬 내식성(耐蝕性)이 좋아지고 또 합금을 만들면 대기 속 보통의 조건하에서도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된다.

8) 2004년도 어패류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며 중국에 대한 어패류 수출은 북한 전체 어패류 수출의 77.9%를 차지한다. 또한 비금속제품의 주된 수출대상국은 중국, 일본, 태국 등이며, 광물성생산품의 주된 수출대상국은 중국, 일본, 태국 등이다.

우도 피 또는 비합금 등의 형태로 수출되고 있다. ② 광은 철, 연, 아연, 몰리브덴, 귀금속광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광’(原鑛)과 원광에서 1차적으로 불순물이 제거된 ‘정광’(精鑛)의 형태로 수출되고 있다. 이들 중 철의 원광과 정광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도에 크게 증가하고 있다. ③ 수출되는 광물성연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연탄으로서 2002년부터 급증하여 2004년에는 49백만 달러로 1998년의 143배나 증가하였다. ④ 목재와 그 제품은 2000년까지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었으며, 대부분 가공하지 않은 원목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

셋째, 소비재로서 어패류와 함께 2001년부터 급증하는 수출품목이 의류이다. 대중국 의류제품 수출은 주로 여성용 블라우스와 저지, 폴오버, 가디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주된 수출품목 중 어패류와 의류의 수출은 2001년을 계기로 급증하고 있다. 이는 다음에 언급하게 될 2001년 이후 보세수출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이 있다.

<표 3-1> 북한의 대중국 수출상위품목의 현황

(백만달러)

HS	출액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		2.7	5.8	4.0	48.0	143.0	206.9	261.2
72 (철강)		10.5	9.8	8.7	23.7	27.9	46.8	75.0
26 (광, 슬랙 및 회)		6.0	2.4	2.6	6.4	8.5	15.0	59.0
27 (광물성 연료, 광물류)		1.5	2.3	3.4	4.3	11.3	17.3	53.0
62 (의류/부속품(메리야스, 뜨개질편물 외))		0	-	0	26.8	38.3	52.2	49.1
79 (아연과 그 제품)		0.3	0.2	0.1	0.2	0.4	13.5	34.6
44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15.7	13.8	9.9	4.6	9.3	13.6	14.7

출처: 中國海關統計; 한국무역협회([www.kita.net](http://www.kita.net))

9) 수출되는 강철은 낙후된 제철공업으로 인해 탄소함유량이 1.7% 이상인 선철과 그 이하인 탄소강이 대부분이며, 탄소함유량이 0.025% 이하인 순철로 제작되는 합금강은 찾아볼 수 없다.

## (거래형태별 구조)

북·중무역은 중국의 기준에 따르면 일반무역, 변경무역, 무상원조, 가공무역, 보세무역, 기타 등 6가지 형태의 무역으로 구별된다. 이들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래형태는 일반무역, 변경무역, 보세무역이다. 일반무역은 통상 국가간 일반적 교역절차에 따라 경화결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무역 형태이며, 변경무역은 중국정부가 변경지역의 주민들에게 인근 국가들과의 교역을 함에 있어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무역제도이다. 또한 보세무역은 중국을 단순 통과하여 제3국으로 수출되거나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북한으로 들어가는 중계무역으로서, 중국의 중간상인이 계약당사자로서 수출입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수출입 거래에 개입하는 형태이다.<sup>10)</sup>

거래형태별 북한의 대중수출의 현황을 보면, 특이하게도 일반무역 비중은 지극히 낮은 반면 변경무역과 보세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중국 수출의 주된 거래형태가 2001년을 전후로 변경무역에서 보세무역으로 바뀌었으며 보세무역이 전체 대중국 수출의 55%~71%일 정도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1년 이후 중국이 북한에서 어패류와 의류 등을 수입하여 이를 남한 등 제3국에 되파는 중계무역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들 물품들이 북한을 원산지로서 하여 남한에 수입되면, 중국에 대한 수출 및 남한에 대한 반출로 2중 계상되므로 북한의 수출이 과대평가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sup>11)</sup> 따라서 북한의 수출규모는 이 점을 감안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10) 참고로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은 수입국에 직송되지 않고 일단 제3국에 양륙된 다음 그 양륙국 상사를 통하여 원형 그대로 또는 약간 가공된 후에 수입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계약은 수출국과 중계국간에 또 중계국과 수입국 사이에 2건이 체결된다. 한편 중계무역(Merchandising Trade)은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 제3국이 계약체결에 개입하는 무역형태로서, 중계무역과 다른 점은 상품이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수입국가로 직송된다는 점이고, 중개업자는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대리인의 입장에 서서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 수수료를 얻게 된다.

11) 그러나 주어진 통계로는 어느 정도 2중계상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

<표 3-2> 북한의 거래형태별 수출

(백만달러,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일반무역	1.3 (3.2)	0.9 (2.5)	9.7 (95.8)	8.8 (3.3)	20.9 (5.3)	75.0 (12.8)
변경무역	32.1 (76.9)	29.5 (79.3)	40.0 (24.0)	55.0 (20.3)	81.3 (20.6)	156.4 (26.7)
무상원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가공무역	5.4 (13.0)	5.0 (13.5)	21.2 (12.7)	11.0 (4.1)	10.3 (2.6)	21.7 (3.7)
보세무역	2.3 (5.5)	1.4 (3.6)	94.9 (56.9)	191.9 (70.9)	278.3 (70.4)	321.1 (54.8)
기 타	0.6 (1.4)	0.4 (1.1)	0.9 (0.6)	4.0 (1.5)	4.5 (1.1)	11.4 (2.0)
총 계	41.8 (100.0)	37.2 (100.0)	166.7 (100.0)	270.7 (100.0)	395.3 (100.0)	585.7 (100.0)

출처: 中國海關統計;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호  
( )안은 비중

## 나. 북한의 수입구조

### (상품별 구조)

최근 북한수입의 주된 특징을 보면, 광물성연료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중수입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동물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곡물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부록 <부표 2> 참조). 이들 곡물을 제외한<sup>12)</sup> 주요

12) 2002년 이래 북한 핵문제가 제기되면서 국제기구 등을 통한 식량원조가 2003년에 이어 2년 연속 크게 줄었으며, 2004년의 경우 중국의 곡물가격 상승 및 곡물수출 제한 등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보다 28.4%가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분을 남한의 지원이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한은 2000년 이후 대북 식량지원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0년 쌀 30만톤, 옥수수 20만톤, 2002~2004년 매년 쌀 40만톤을 차관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품목들의 가장 큰 수입대상 국가는 중국이다.<sup>13)</sup>

1998~2004년 동안의 대중국 수입상품 구조 현황을 HS 2자리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물성연료 및 광물류의 수입이 동기간 연평균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14)</sup> 구체적으로 보면 원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 석유조제품, 석탄, 유연탄, 코크스 등이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원유의 경우 1980년대에는 소련에 대부분을 의존해 왔으나 1990년대 들어 북한의 외화사정이 어렵게 되면서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특히 1999년 이후 원유와 코크스 등 광물성 생산품을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둘째, 육류수입은 2001년부터 급증하여 2003년부터 전체 대중수입의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된 육류의 대부분은 돼지고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0년 이후 수입품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곡물이다. 곡물은 정미된 쌀과 옥수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보리와 밀 등이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부터 곡물수입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00년 이후 한국으로부터의 무상지원 증가와<sup>15)</sup> 2003년의 경우처럼 중국작황의 곤란 등에 기인한다.

셋째,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들은 전기기기, 철강제품, 기

13) 2001년 이후 2004년도 광물성 생산품은 중국, 러시아, 태국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동물제품은 중국, 태국 등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 또한 곡물은 한국을 제외하면 중국, 태국, 미국, 인도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주요 수입품 대부분의 가장 큰 수입국은 중국이다.

14) 2004년 도입량은 1998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나 2000년 이후 수입단가가 상승하여 2004년도 원유 수입액은 1998년의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표> 북한의 연도별 원유도입 현황 (만톤)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중 국	110	110	105	83	102	93.6	50.6	50.3	31.7*	38.9	57.9	47.2	57.4	53.2
기 타	79	42	31	8	8	0	60	10.6	0	0	0	12.5	0	8.1
합 계	189	152	136	91	110	93.6	110.6	60.9	31.7	38.9	57.9	59.7	57.4	61.3

자료: KOTRA, “2004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5

15) 북한에 쌀과 밀가루 등 곡물을 수출하고 있는 무역회사 사장인 程軍(丹東廣大國際貨運代理有限公司 總經理)에 따르면 최근 곡물의 수출감소는 남한의 지원이 증가하면서 중국산 곡물에 대한 북한의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계류, 차량 및 부속품 등이다. ① 전기기기는 전화기, 흑백TV, 칼라TV, 전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칼라TV 수입은 1999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17.4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식용육류의 수입증가와 함께 북한주민의 소비패턴이 부분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 철강은 압연가공(壓延加工)의 단계를 거친 다양한 강재(鋼材 steel materials)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으로부터 철강의 수입과 북한의 철강수출을 비교해보면, 중국은 압연가공(壓延加工)하여 강재(鋼材 steel materials)를 생산·수출하는 반면, 북한은 그 이전 단계인 선광, 제련과, 정련과정의 생산품인 정광, 선철과 조강을 생산·수출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공정단계의 차이에서 철강부문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수직적인 분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기계류는 건설용 장비, 제철, 식품생산기계, 컴퓨터 등 다양한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품목들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④ 차량 및 부속품은 화물자동차, 승용차,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있으나 화물자동차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표 3-3> 북한의 대중국 수입상위품목의 현황

(백만달러)

HS	총액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7 (광물성 연료, 광물류)		84.8	79.5	117.9	161.8	118.0	180.7	204.4
02 (식용육류)		2.8	1.3	1.4	6.7	10.4	63.6	140.6
85 (전기기기, 전자기기 및 부속품)		9.7	13.4	21.0	23.4	27.5	39.6	45.8
72 (철강)		12.3	14.6	22.7	22.1	20.8	20.7	39.6
84 (기계류)		6.6	11.1	14.4	23.1	26.4	27.0	39.6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5.5	13.9	17.3	23.3	25.1	24.6	32.0
87 (차량 및 부속품)		9.8	6.9	28.8	18.7	7.9	8.6	18.3
54 (인조필라멘트)		8.4	4.6	5.9	6.1	9.7	14.6	18.0
10 (곡물)		51.4	43.7	34.0	62.6	29.9	50.0	15.3

출처: 中國海關統計;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거래형태별 구조)

거래형태별 수출구조와는 달리 일반무역이 대중국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인 원유 및 식량에서부터 생활용품까지 주로 일반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대중국 수출과 달리 수입에 있어서 일반무역의 비중이 큰 이유는 중국에서 일반무역이나 변경무역 구분없이 수출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증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므로 중국의 무역업자들이 굳이 변경무역을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sup>16)</sup>

무상원조는 북한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지자 1996년을 기점으로 정상수준으로 재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양국의 정치적 관계개선의 상징으로서 주로 주요 인사들의 방문 대가로 '선물'처럼 제공되어 왔다. 무상원조는 1999년 북·중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지면서 증가했으나 이후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2002년부터 현저히 감소하였다.<sup>17)</sup>

주요 무상원조 품목은 원유, 코크스, 옥수수, 쌀, 밀가루 등으로 북한경제를 지탱하는데 필수품목들이다. 중국은 이들 품목을 기본적으로 우호가격으로 수출하고 나머지 일정량을 무상원조 형식으로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sup>18)</sup> 그러나 1990년 전후로 중국의 해관통계를 비교해보면 1990년 이전에는 북한과 다른 국가들에 대한 원유수출 단가의 차이가 컸던 반면,<sup>19)</sup> 최근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단가가 특별하게 낮지 않아 우호가

16) 단동의 무역업자들에 따르면, 북한은 수입과 수출에 모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출관세는 수입관세에 비해 낮고 수출의 세금감면 혜택이 없다. 일례로 수입의류는 20%, 수출 수산물의 경우 5%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식량, 원유, 코크스 등 전략물자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17) 1999년 6월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는데, 중국정부는 북한대표단의 중국방문에 대한 우호의 표시로 15만톤의 식량과 40만톤의 코크스를 무상 원조키로 결정함으로써 양국간 협력관계가 급진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는 황대두의 무상원조가 증가(25.7%)한 것 외에 나머지 품목의 무상지원은 비교적 감소폭이 컸다. 특히 2000년 5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방중의 효과로 지원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 보도되기도 했으나 기대했던 만큼의 대규모 지원은 없었다.

18) KOTRA, 『1990-2000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1, p. 75

격의 적용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중국 해관통계에서 원유, 쌀, 밀가루, 코코스 등 주요 물품들의 대북한 수출단가를 대남한 수출단가와 비교해보면 밀가루를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부록 <부표 7>참조). 따라서 공식통계에서 은폐된 것이 아니라면 우호가격이 유명무실하거나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과거 1990년대 이전보다는 훨씬 소폭의 우호가격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하여 지원성무역의 의미가 작은 것은 아니다. 북·중무역에 있어 중국의 지원성 무역은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 이상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관계의 고립과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지원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의 정치군사적인 안전보장으로서의 의미가 클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북·중무역의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표 3-4> 북한의 대중국 거래형태별 수입

(백만달러,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일반무역	166.2 (50.6)	277.2 (61.5)	347.0 (60.6)	300.3 (64.3)	431.3 (68.7)	566.2 (70.8)
변경무역	75.3 (22.9)	106.9 (23.7)	116.7 (20.4)	99.3 (21.3)	114.7 (18.3)	143.7 (18.0)
무상원조	48.4 (14.7)	27.6 (6.1)	69.1 (12.1)	16.0 (3.4)	10.9 (1.7)	14.6 (1.7)
가공무역	28.4 (8.6)	29.8 (6.6)	26.3 (4.6)	22.5 (4.8)	44.9 (7.2)	35.2 (4.4)
보세무역	6.7 (2.1)	7.4 (1.6)	8.7 (1.5)	19.0 (4.1)	20.4 (3.3)	20.9 (2.6)
기타	3.8 (1.2)	1.9 (0.4)	5.3 (0.9)	10.2 (2.2)	5.4 (0.9)	19.0 (1.8)
총계	328.7 (100.0)	450.8 (100.0)	573.1 (100.0)	467.3 (100.0)	627.6 (100.0)	799.5 (100.0)

출처: 中國海關統計;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호  
( )안은 비중

19) 중국의 해관통계에서 나타난 중국의 대(對)세계 원유수출단가를 보면, 1990년을 전후로 30% 정도 상승하고 있다. 반면 대(對)북한 원유수출단가 추이를 보면 1990년을 전후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1990년 이후에는 다른 국가들과 거의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카니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p. 330.

## 2. 구조적 특징

### 가. 상품별: 1차상품의 수출과 소비재 수입의 증가

#### (1차상품 중심의 수출구조)

북한의 대중국 수출상품구조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주된 수출품은 어패류, 광, 목재 등 대부분 1차상품이거나 중공업제품으로서 매우 기초 단계의 가공품인 철강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중공업우선주의를 추진해 온 북한의 철강제품 수출을 보면, 원광, 정광, 그리고 선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철강산업이 코크스와 전력부족으로 제련단계에서 멈추고 있기 때문이다.<sup>20)</sup> 더욱이 ‘재용해용 파철’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공장가동률이 20~30%를 유지하게 되면서 고철이 되어버린 기계설비들을 재용해용으로 수출하여 외화를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1차상품과 기초단계의 가공품 위주의 수출이 주를 이루는 것은 북한의 중공업을 비롯한 제조업 전반의 기반이 와해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의류 등의 수출은 남한을 비롯한 제3국의 기계 및 원부자재를 활용한 위탁가공 생산의 결과이다. 그 결과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비중은 줄어들고 1차상품 및 경공업제품의 수출비중이 늘고 있다.<sup>21)</sup>

20) 참고로 제철과정 및 그 산물을 구별해보면, 원광(原鑛)을 선광하여 높은 품도의 광물인 정광(精鑛)을 만들고, 정광을 제련(製鍊)하여 선철(銑鐵)을 만들게 되며, 이 선철을 다시 정련(精鍊)하여 강(鋼 steel)을 만들게 되며, 이 강을 압연가공(壓延加工)하여 강재(鋼材 steel materials)를 만들게 된다. 그런데 코크스와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선철 또는 조강을 만드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조강 또는 선철을 만드는 제련과정은 800~1000도 정도의 고열이 요구되며 이는 북한산 무연탄으로 가능하지만, 순철을 만드는 야금과정은 1,535도 이상의 고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북한에서 생산되지 않는 코크스나 대량의 전기가 요구된다. 따라서 제1차 가공품생산에 필요한 순철(純鐵) 생산은 매우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21) 참고로 현재 1차상품 위주의 북한의 수출구조는 1960년대 이전의 한국의 수출구조와 유사하다. 한국의 1950년대는 중석, 생사, 흑연 등 1차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는 1960년대에는 의류, 합판, 가발 등 경공업제품이 크게 확대되었다.

<표 3-5> 북한의 대중국 제품별 수출비중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차상품	58.2	31.8	58.5	54.9	61.9	67.7	69.2
중화학공업	37.0	30.9	32.7	27.2	13.5	17.3	21.0
경공업	4.8	37.3	8.8	17.9	24.6	15.1	9.8

출처: 中國海關統計; 한국무역협회([www.kita.net](http://www.kita.net))의 통계자료(HS 2자리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

둘째, 북한의 수출은 상당부분 중국 등의 외부 투자에 기반하고 있다. 우선, 선박과 원료가 부족한 북한이 어패류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선박과 원료를 제공하고 북한이 노동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수산물 채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sup>22)</sup> 북한은 그 대가로 채취한 수산물의 일부를 중국에 제공하거나 전량을 판매해야 한다.<sup>23)</sup>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류제품의 수출은 한국, 일본 등 제3국의 생산설비와 원자재를 도입하여 위탁가공하여 수출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해산청년동광, 무산철광산, 용등탄광 등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창바이자오진광업주식유한회사(長白招金鑛業株式有限會社)는 아시아 최대의 동광인 <해산청년동광>에 2억2천만위안(284억원)을 투자하기로 북한당국과 합의, 중국 상무부의 인가만을 남기고 있다고 한다.<sup>24)</sup> 또한 지린(길림)성 기업들이 아시아 최대의 노

<표> 한국의 제품별 수출비중 (%)

	1962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1차상품	73.0	37.7	16.4	11.7	7.7	4.7	5.0	4.9	2.8	2.7
중화학	7.2	13.0	13.0	26.8	43.9	58.1	56.5	72.6	80.8	80.8
경공업	19.8	49.3	70.6	61.5	48.4	37.2	38.3	22.5	16.4	16.5

출처: 한국무역협회, 통계청

22) 단둥에서 무역하고 있는 A씨에 따르면, 북한은 전력 및 시설부족으로 냉동보관이 불가능하므로, 중국은 북한 수산물을 중국의 냉동작업선(100-150만톤)을 해상에 대기시켜 채취하는 즉시 선별·냉동처리하여 한국으로 수출한다. 이러한 과정은 주로 철산반도 부근의 신미도에 조중해상무역장이 있어 세관, 통검, 변방 등 무역에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된다.

23) 외화벌이 사업에 종사했던 탈북자 S씨에 따르면 채취한 수산물 전량을 그 업체에 판매하는 조건으로 중국 무역업자로부터 1대당 8,000달러하는 중국 배와 1달 동안 조업에 필요한 일체의 식량, 부식물 등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천철광인 <무산철광>에 40억위안(6.2천억원)을 투입해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다.<sup>25)</sup> 그밖에도 “중국은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고 북한은 그 전력으로 철광석 등을 생산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경제협력방안을 추진중이며 장기적으로 북한의 항구를 중국의 수출항으로 이용하는 수준까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외 중국 비철금속대기업인 '중국우광(五礦)집단'이 2005년 10월 북한의 최대 탄광인 평안북도 <용등탄광>과 석탄시굴 관련 합병회사를 조만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sup>26)</sup>

### (생산재 중심의 수입구조, 최근 소비재 수입 증가)

북한의 대중국 수입상품구조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에너지와 식량(곡물과 육류)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대중국 수입의 연평균 40%에 달하며 그 비중이 줄지 않고 있다.

<표 3-6>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의 비중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광물성 연료, 광물류	23.8	24.2	26.1	28.4	25.2	28.8	25.7
식 용 육 류	0.8	0.4	0.3	1.2	2.2	10.1	17.7
곡 물	14.4	13.3	7.6	11.0	6.4	8.0	1.9
합 계	39.0	37.9	34.0	40.5	33.9	46.9	45.3

출처: 中國海關統計;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자료(HS 2자리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

이는 북한경제에 기본적인 요소들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24) 연간 66만톤을 채굴할 경우 5천만위안(64억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4.11.19

25) <연합뉴스>, 2005.1.29. 한편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철광석을 현물로 받는 조건으로 중국기업과 합작해 북한의 무산광산 개발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5.5.24

26) 중국 우광집단 총재가 임경만(林景万) 북한 무역상과 만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탄광은 한때 연간 300만t의 무연탄 생산량을 가진 북한 최대 규모였으며 지금은 연간 100만t을 생산하는데 합병회사는 용등탄광 안에 설립된다. <연합뉴스>, 2005.10.28

아니라 여전히 북한이 에너지 및 식량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못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생산재가 약 80%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해 왔었으나 최근 소비재 수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sup>27)</sup> 특히 과거 북한의 생필품이라 할 수 없는 식용육류, 칼라TV, PC 등 비교적 고급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sup>28)</sup> 이처럼 소비재수입규모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북한경제의 호전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무엇보다 1999년 이후 대북지원의 확대에 원인이 있다. 즉 1999년 이후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이 크게 확대되면서 대북 식량지원/전체 식량유입 비중이 90%를 상회하게 되었으며,<sup>29)</sup> 그에 따라 식량구입에 소요되었던 외화로 육류 등의 소비재를 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또한 PC 등 일부 고급제품의 수입증

27) 참고로 한국의 수입구조와 비교해보면, 북한의 수입구조는 자본재의 수입비중이 낮고 소비재의 수입비중이 높으며, 소비재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수입구조와는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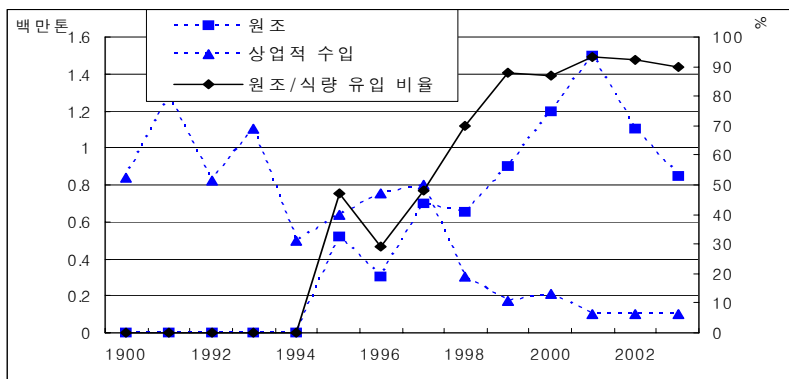
<표> 한국의 용도별 수입비중 (%)

	197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원자재	52.9	65.0	55.8	53.9	50.0	50.8	52.4
자본재	23.1	23.0	35.6	36.5	39.8	40.0	36.5
소비재	24.0	12.1	8.5	9.6	10.2	9.3	10.8

출처: 한국무역협회, 통계청

28) KOTRA, 북한경제뉴스, 2001.2.17. 중국의 무역상에 따르면 북한의 소비패턴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 제품의 수출전망을 낙관하고 있다. 참고로 2005년도 중국에서 3,000위안 정도하는 중고 컴퓨터가 북한에 가면 8,000위안 정도에서 거래된다고 한다.

29) <그림> 북한의 식량수입과 원조(1990-2003)



출처: "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 2005.6(CRS report)

가 현상은 시장화의 진척으로 부를 축적한 일부 계층의 고급 소비재에 대한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sup>30)</sup>

<표 3-7> 북한의 대중국 용도별 수입비중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원자재	67.2	63.6	64.7	64.7	62.5	56.0	53.3
자본재	10.5	15.0	21.0	15.7	17.6	14.9	16.7
소비재	22.3	21.4	14.2	19.6	19.9	29.1	30.0

출처: 中國海關統計;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자료(HS 2자리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

이처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다른 국가들에서의 수입과 달리 원자재, 자본재 등의 생산재 외에도 식량을 비롯한 다양한 생필품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sup>31)</sup>

### (열악한 대중국 무역경쟁력)

북한의 대중국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대중국 무역특화지수를 보기로 하자. 무역특화지수는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sup>32)</sup> 북한의 대중국 경쟁력 지수로 사용될 수 있는데, 0 이상 1 이하이면 그 제품이나 산업

30) 중국의 대북 비즈니스 업체인 북경북중우련문화교류공사의 정봉 부이사장의 <중국경영신문>과의 인터뷰 (KOTRA.2004. 4.30). 최근 단둥시 증연호텔 등 고급호텔의 주요 고개 40% 정도가 북한 무역일꾼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단둥의 재중동포는 “현지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며 이들은 최고급 명품과 술집만을 찾으며, 일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돈을 만지고 있다”<조선일보>, 2004. 3.25

31) 2004년도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일본으로부터 차량, 전자전기, 기계류 등 ② 러시아로부터 프로세스유, 전기전열유, 유연탄 등 ③ 태국으로부터 원자로, 기계류, 곡물 등 ④ 남한으로부터 비료, 섬유류, 농림수산물 등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들 중 곡물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생산재로 투입되는 품목들이다.

32)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총수출액 + 총수입액) 이 지수가 0인 경우 비교우위는 중간정도이다. 1이면 완전 수출특화상태를 말하는데, 수입은 전혀 하지 않고 수출만 한다는 뜻이다. 또한 -1이면 완전 수입특화 상태로서 수출은 전혀 없고 수입만 한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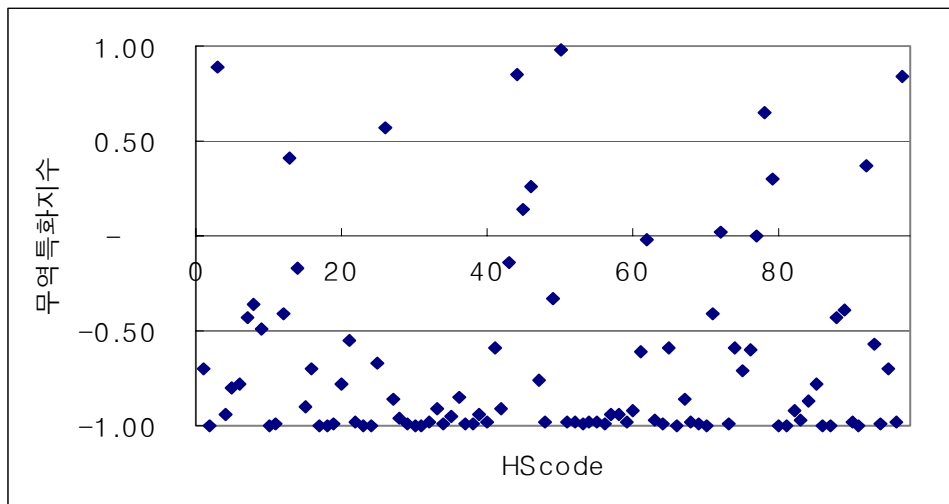
이 무역흑자를 기록해 경쟁력이 강한 것을 뜻하고 -1에 가까울수록 경쟁력이 약하거나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1998~2004년 기간 북한의 대중 무역특화지수 변화를 보면, 2004년도 수출특화품목이 15개로서, 1998년 13개 1999년 9개에 비해 약간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특화품목은 2004년 78개로서, 1998년 81개 1999년 86개에 비해 약간 줄고 있어 미미하게나마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부표 9> 참조)

둘째, 동 기간 북한의 수출특화품목(1998~2004년 평균)은 HS 96개 품목 중에서 어패류 0.89, 철강 0.02, 금속광물 0.57, 아연 0.30, 목재 0.85 등 12개 품목에 불과하다. 특히 이들 중 무역특화지수가 0.5이상인 품목은 어패류, 금속광물, 목재, 견, 골동품 등 5개 품목에 불과하다.(2004년 기준)

반면 수입특화품목(1998~2004년 평균)은 84개로 수출특화품목 12개의 7배를 보일 뿐만 아니라 이들 중 무역특화지수가 -0.5 이하인 품목들의 수는 71개에 달하며, -0.9 이하가 50개로 전체 품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북한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1998~2004년 평균)



출처: 中國海關統計; 한국무역협회([www.kita.net](http://www.kita.net))의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나. 거래형태별: 변경 및 보세무역 중심

### (통계상의 규모보다 큰 변경무역)

변경무역은 2001년 이전까지 대중수출의 80% 정도를 차지해왔다. 이처럼 변경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해 온 이유는 중국정부가 변경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변경무역에 대해 수입관세와 增值稅(부가가치세)의 50%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데 기인한다. 참고로 중국은 일반적으로 수출품에 대해서는 거래형태와 무관하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변경무역에 한해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각각 50% 감면하고 있어, 중국과 인접해 있는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가격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sup>33)</sup>

한편 중국의 실제 변경무역 규모는 통계상에 나타나고 있는 규모보다 훨씬 크다. 변경무역은 변민호시무역(邊民互市貿易)과 변경소액무역(邊境小額貿易)으로 나누어지는데, 변민호시무역은 국경선 20km 내의 정부 허가 개방지역 혹은 시장에서 변경지역 주민들이 생활용품을 거래하는 무역을 말하며, 변경소액무역은 변경지역의 변경소액무역권을 부여받은 기업이 변경세관을 통해 인접국 변경지역 기업 혹은 무역기구와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sup>34)</sup> 그런데 통계상에 나타나는 변경무역은 변경소액무역만을 말하며, 변민호시무역의 경우 중국 해관 통계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변민호시무역의 전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중국해

33) 현재 중국의 평균관세율 12%, 평균증치세율 17%인 것을 감안하면 변경무역이 일반무역보다 산술적으로 14% 정도의 원가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KOTRA, 『2004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5, p. 40.

34) 관세 및 증치세 상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중국 관계 당국의 요건에 합당한 변경 지역 업체로서 중국 정부로부터 <변경소액무역권> 허가를 받아야 한다. KOTRA 대련 무역관의 보고에 따르면, 2004년 10월 현재 단동시에 130여 개의 업체, 연변 지역에 100여 개, 훈춘 지역에 약 15개 업체가 변경소액무역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받은 변경무역은 담배, 화장품, 주류 등 특정상품을 제외한 전 제품에 대해 증치세와 수입관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관 규정을 통해 변경호시무역의 개인거래 한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변경지역주민들은 국경출입시 관세와 부가가치세 없이 1인 1일 3,000위안(360달러)의 현금과 1,000위안(120달러) 이내의 생활용품 및 식품과 그외 술, 담배 그리고 TV 등의 물품을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sup>35)</sup> 따라서 중국 변경지역 주민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하루 5,000위안(600달러) 내외의 거래가 가능하므로 통계에 포착되고 있지 않으나 적지 않은 규모의 변경호시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2004년부터 변경무역의 세제감면 혜택을 줄이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북한도 변경무역의 세제감면을 줄이고 있다.<sup>36)</sup> 이로 인해 변경무역이 위축될 수는 있으나, 인접성에 따른 저렴한 물류비로 인하여 세제감면혜택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는 한 변경무역의 비중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남북관계 개선으로 보세무역 확대)

2001년을 계기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의 주된 거래형태가 변경무역에서 보세무역으로 바뀌고 있다. 그 이유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남북관계 개선으로 어패류와 같은 일부 우수한 북한산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나, 북한의 상품화(선별, 저장, 포장 등) 능력 및 운송인프라가 취약한 데다<sup>37)</sup> 남북한 직거래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sup>38)</sup> 중국기업이 북한과

35) 필자가 단둥해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경지역주민의 국경출입시 휴대 한도를 ① 1,000위안 이내의 일반생활용품 및 식품, ② 담배 400개피, ③ 술 2병, ④ 재봉틀, 녹음기, 선풍기, 카메라, 세탁기, 냉장고, 자전거, TV중 1개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36) 중국의 라오닝성 및 지린성 정부는 2004년도 변경무역 관련 감면세 대상 품목들을 대폭 축소했다고 밝히고 있다(KOTRA, 2004.10.29 [www.globalwindow.org](http://www.globalwindow.org)).

37) 수출규모가 작고 공급이 불규칙적인 상품의 경우, 남북간 해상운송은 정기항로도 매우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운항간격이 길어서 물류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수산물의 경우 수출에 부적합하다. 또한 북한은 수출에 필요한 냉동처리, 규격화, 포장 등 상품화 능력이 취약하여 중국기업에 의한 처리가 요구되기도 한다.

38)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과 무역을 원하는 중국 이외의 무역업자의 경우 북한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가 어려운데다 물건을 검품할 수 없어 품질을 보증하기 어려워 북한과의 직거래보다는 북

한국을 비롯한 제3국간의 무역에 보세무역의 형태로 개입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참고로 남북교역의 경우 60% 이상이 중국을 통한 간접교역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중 85% 이상이 단동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반입되고 있다.<sup>39)</sup> 또한 중국의 대북한 보세무역에서 남북교역을 중계하는 거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어패류 수출이 증가한 이유가 2002년 이후 일본에 대한 수산물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수산물수출이 중국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중국 어패류수출은 이미 2001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어패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일차적 원인을 남북관계 개선에서 구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산품이 북한산으로 둔갑하여 수입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북한산 물품의 제3국 경유 반입에 대한 사전승인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2002년 10.24일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반입되는 물품만 북한산으로 인정하고, 제3국을 경유한 반입 물품은 모든 품목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반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승인을 받은 품목에 한해서만 북한산으로 인정하였다.<sup>4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신청된 것중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은 대부분 승인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2004년 11월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중국산물품의 위장반입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자 임가공물품을 제외한 북한산 물품의 제3국 경유 반입에 대한 사전승인이 한층 강화되었다.<sup>41)</sup> 또한 2005년 9

한사정에 밝은 중국기업의 중개를 선호하게 된다. 한편 북한 무역업자도 대외사정에 밝지 않은 편인데다가 특히 남한의 무역업자와 직접 만나는 것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기업을 중개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39) 이에 대해서는 재중국단동한국인회·재중국단동한국상회, “남·북물류 현주소 및 문제점”, 2005.6.15를 참조할 것.

40) 2002년10월24일 이전에는 통일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반입할 수 있는 물품들에 대한 규정(남북교류 반입절차 고시 제3조)이 제3국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물품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는데, 중국산물품이 북한산으로 둔갑되어 반입되는 사례들이 증가하자 이에 대하여 제3국을 경유해서 반입되는 물품들은 통일부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반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후 의류 등 임가공물품은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품목(고시 제4조), 활어, 송이버섯 등 신선도의 유지를 위해 신속한 수송을 필요로 하는 물품, 그리고 한약재 등에 한해서는 과거처럼 제3국 경유한 반입을 사전승인 해주었으나, 그 외의 물품들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제한하였다.

월 개성에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가 개설됨에 따라 향후 이를 통해 남북간 직거래가 활성화되면 보세무역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다. 지역별: 동북3성에 편중된 무역

변경무역과 보세무역 등의 이점으로 인해 북한의 중국과의 무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중국의 동북3성에 집중되어 있다. 동북3성과의 무역규모는 10억 달러로 대중국 무역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도 남북교역액 7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우선, 북한의 대중국 수출을 보면 중국 변경무역의 관세혜택으로 인해 접경지역인 요녕성과 길림성에 전체 수출의 90%가 집중되어 있다. 그만큼 북한산품에 대한 수요는 거의 대부분 요녕성과 길림성에 국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8> 북한의 동북3성에 대한 수출비중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요녕성	43.1	42.9	40.5	67.7	80.4	81.6	66.8
길림성	41.2	47.6	48.6	15.0	12.5	12.4	18.0
흑룡강성	3.9	0	0	0.6	0.7	0	0.5
기 타	11.8	9.5	10.9	16.7	6.4	6.0	14.7

출처: 中國海關統計; 한국무역협회([www.kita.net](http://www.kita.net))

따라서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들인 어패류, 철광, 무연탄, 선철, 재용해용 폐철, 의류 등 주된 수출품도 대부분 요녕성과 길림성으로 수출되고 있다. 다만 북한의 대중국 철광수출은 2001년부터 요녕성과 길림성외에 강

41) 이로 인해 그동안 보세무역에 종사해왔던 조선족 무역회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재중국단동한국인회·재중국단동한국상회, “남·북물류 현주소 및 문제점”, 2005.6.15를 참조할 것.

소성(江蘇省), 광둥성(廣東省) 등으로, 무연탄 수출은 산둥성(山東省), 강소성(江蘇省), 절강성(浙江省)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sup>42)</sup>

한편 2001년을 기점으로 전체 수출뿐만 아니라 요녕성에 대한 수출에도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요녕성의 단둥(丹東)을 경유한 어패류와 의류 보세수출의 급증이다.<sup>43)</sup>

북한은 요녕성, 흑룡강성, 길림성 등 동북 3성으로부터 전체 수입의 70%를 수입하고 있다. 요녕성으로부터의 수입은 다른 성들에 비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수입품목 또한 곡물, 제분공업의 생산품, 광물성연료, 플라스틱, 철강 등 다양하다. 흑룡강성으로부터의 수입은 요녕성 다음으로 큰 규

42) <표>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의 요녕과 길림성의 비중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어패류	70.8	86.5	93.1	99.8	99.8	100.0	97.4
철광 및 정광	84.8	53.3	62.8	38.9	10.7	24.6	48.3
무연탄	98.8	100.0	100.0	12.2	51.1	39.7	23.6
선철	98.8	100	100	62.1	86.4	90.8	89.3
재용해용 폐철	72.5	89.2	78.1	75.1	92.1	96.8	75.9
의류제품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中國海關統計;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43) <표> 북한 어패류(HS03)의 대중국 수출 현황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계(천달러)	2,748	5,755	4,047	47,977	143,016	206,931	261,231
요녕성(%)	56.3	63.2	62.9	97.8	95.2	96.8	88.9
길림성(%)	14.6	23.2	30.2	2.0	4.6	3.2	8.5
기 타(%)	29.2	13.5	6.9	0.2	0.2	0.0	2.6
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中國海關統計;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표> 북한 의류제품(HS61)의 대중국 수출 현황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계(천달러)	154	0	37	66	2,842	2,200	3,559
요녕성(%)	89.6	0	100.0	100.0	100.0	100.0	99.9
길림성(%)	10.4	0	-	-	-	0.0	0.1
총 계(%)	100.0	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中國海關統計;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모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수입의 약 80% 정도를 광물성연료가 차지할 만큼 단순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흑룡강성으로부터의 수입이 큰 이유는 중국 최대 유전인 흑룡강성의 다칭(大慶)으로부터 원유가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sup>44)</sup> 길림성으로부터의 수입규모는 동북 3성중 가장 작으며 곡물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9> 북한의 동북3성에 대한 수입비중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요녕성	37.5	36.2	31.9	30.3	28.9	24.5	26.0
흑룡강성	19.3	17.0	20.8	24.2	23.8	25.5	25.7
길림성	12.9	15.2	16.0	16.1	17.6	15.6	11.9
기 타	30.3	31.6	31.3	29.4	29.7	34.3	36.4

출처: 中國海關統計;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북한무역이 동북3성에 편중된 주된 이유는 세계감면 혜택과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요약되는데 이들의 영향을 1998~2004년 기간 동안 중국의 30개 성의 대 북한수입을 통해 추정해 보면, 성별(省別) 국민소득과 수입간에는 0.04, 거리와 수입간에는 -0.31, 조세부과율과 수입간에는 -0.59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sup>45)</sup>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조세부과율과 지리적 인접성이 성별 국민소득에 비해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조세부과율의 영향이 지리적 인접성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44) 중국 최대의 헤이룽장성 다칭(大慶) 유전에서 약 400km에 걸쳐 단둥 북부, 압록강, 신의주를 지나 안주 부근까지 이어지는데 이 송유관은 보안과 도난 방지를 위해 땅 속에 매설되어 있으며 압록강은 강바닥을 통과해 매설되어 있다. 1976년에 개통된 이 송유관은 직경 40cm 정도로 연간 최대 400만톤의 원유 수송이 가능하다. <요미우리신문>, 2004.12.14.

45) 중력이론에 근거하여 수입과 국민소득, 거리(평양과 각 성의 성시간 거리), 세계감면 혜택(변경무역시 약 14%의 원가절감효과) 등에 대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중력이론은 국제무역이론에서는 양국간 교역이 거리에 반비례하고 경제규모에 비례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모형으로 그동안 국제무역이론에서 간과되어 왔던 지리적 요인 그리고 더 나아가 관세율 등을 고려함으로써 양국간 교역 패턴을 설명하는 모형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 IV. 북·중무역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1.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북·중무역이 북한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크다면 북한의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경제 관련 통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그 영향을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가정을 이용하여 그 영향을 대략적으로 추정해보기로 한다.

우선, 수출과 수입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수출과 수입의 국민소득에 대한 탄력성  $\frac{\partial Y_t}{\partial X_t} \frac{X_t}{Y_t}$  과  $\frac{\partial Y_t}{\partial M_t} \frac{M_t}{Y_t}$  을 이용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수출에 대한 국민소득탄력도와 수입에 대한 국민소득탄력도는 국민소득  $Y_t \equiv C_t + I_t + G_t + X_t - M_t$  을 수출과 수입에 대해 미분한 후, 각각 양변에  $\frac{X_t}{Y_t}$  와  $\frac{M_t}{Y_t}$  을 곱하여 구하면 각각  $\frac{\partial Y_t}{\partial X_t} \frac{X_t}{Y_t} = \frac{X_t}{Y_t}$  와  $\frac{\partial Y_t}{\partial M_t} \frac{M_t}{Y_t} = -\frac{M_t}{Y_t}$  이 된다. 이를 이용하여 수출과 수입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구하면, 각각  $\frac{\partial Y_t}{Y_t} = \frac{X_t}{Y_t} \frac{\partial X_t}{X_t}$  과  $\frac{\partial Y_t}{Y_t} = -\frac{M_t}{Y_t} \frac{\partial M_t}{M_t}$  이며 이를 합하면

$\frac{\partial Y_t}{Y_t} = \frac{X_t}{Y_t} \frac{\partial X_t}{X_t} - \frac{M_t}{Y_t} \frac{\partial M_t}{M_t}$  이 된다.

그러나 수출과 수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수출과 수입이 생산에 파급되는 효과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수출은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수출을 위한 생산을 유발하게 되며 수입은 국민소득을 감소시키거나 그중 일부는 생산요소로 투입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은 수출이 수입을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가능하며 수입은

최소한의 생산요소에 국한되는 수입중심의 무역구조를 보이고 있다. 물론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북한의 무역구조도 변하고 있지만, 수입은 생존을 위한 생필품을 제외하면 여전히 자본재와 원자재 등 생산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수입되는 생필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량(곡물과 육류)은 굶주리는 북한 근로자에게 단순히 소비재로서 기능하는 게 아니라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기본적인 생산재로 기능하고 있어 북한의 수입구조는 여전히 대부분 생산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sup>46)</sup>

따라서 북한의 수출과 수입의 특성상 수출의 생산유발효과는 무시하고 수입은 대부분 생산재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여 수입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만을 고려하기로 하자.<sup>47)</sup> 수입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Q_t = AK_t^\alpha L_t^\beta T_t^\gamma M_t^\delta = Y$ <sup>48)</sup>과 같은 수입이 추가된 ‘확대된 생산함수’(import-augmented production function)모형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

데,  $\delta = \frac{\partial Q_t}{\partial M_t} \frac{M_t}{Q_t}$ 이다. 그 결과 수입에 대한 국민소득 탄력도는

$$\frac{\partial Y_t}{\partial M_t} \frac{M_t}{Y_t} = \delta - \frac{M_t}{Y_t}, \text{ 수입증가에 의한 경제성장률은 } \frac{\partial Y_t}{Y_t} = \left(\delta - \frac{M_t}{Y_t}\right) \frac{\partial M_t}{M_t} \text{ 이}$$

된다.

그러나 북한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delta$ 를 추정하기 곤란하므로, 총수입의 90% 정도가 생산재인 한국의 확대된 생산함수 모형에서 추정된 결과를 수용하여  $\delta = 0.13$ 으로 가정하기로 한다.<sup>49)</sup>

46) 식량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식량 사정의 완화는 최근 북한경제 회복의 주된 요인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47) 물론 수입이 100% 생산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규모는 작지만 일부 생산과 무관한 생필품과 사치품도 있다. 한편 수출의 생산유발효과도 고려되어야 하나 북한의 산업연관표가 없어 추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제되어야 할 생산과 무관한 수입의 부가가치 증대효과와 부가되어야 할 수출의 생산유발효과는 서로 상쇄된다고 단순화하였다.

48) 이와 관련하여 필자의 “북한무역 및 남북교역이 북한경제성장에 미친 효과분석”, 금융경제연구 210호; 『경제분석』 10권4호, 2004에서  $Q_t = C_t + I_t + G_t + X_t$ 이란 규정은 국내산출에서 수입을 제외하지 않은 잘못된 서술이었음을 밝히며, 이를  $Q_t = C_t + I_t + G_t + X_t - M_t$ 으로 정정한다.

49) 기존의 추정된 북한의 자본스톡, 국민소득, 노동인구 등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수입에



기존 한국은행이 추정한 북한국민소득을 토대로 북·중무역이 북한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 북·중무역이 북한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2000	2001	2002	2003	2004	기간중 연평균
북한의 경제성장률(%)	1.3	3.7	1.2	1.8	2.2	2.1
북중무역의 성장기여율(%-p)	3.8	6.2	-0.9	4.3	3.9	3.5

출처: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www.bok.or.kr)

추정결과를 보면, 2000~2004년 동안 북·중무역의 증가는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매년 약 3.5% 포인트 상승시키고 있다.<sup>50)</sup> 이러한 추정결과는 2000~2004년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1%임을 감안할 때, 북·중무역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1999년 이후에도 부(負)의 성장을 계속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한 국민소득 탄력도는 0.16이다.

$$\ln(Y/L)_t = -1.550 + 0.878 \ln(K/L)_t + 0.157 \ln(M/L)_t + e_t$$

(-0.46)      (2.95)                      (1.85)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남한 가격을 적용하여 추정된 북한의 국민소득과 세계시장가격으로 평가된 무역을 동일 선상에서 놓고 추정했다는 문제점이 있어 그 결과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슷한 수입구조를 갖는 한국의 수입에 대한 국민소득탄력도를 이용하고자 한다. 확대된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1980-97년 기간 한국의 수입에 대한 국민소득탄력도를 추정한 결과는 0.13으로 나타나고 있다.

$$\ln(Y/L)_t = 0.185 + 0.335 \ln(K/L)_t + 0.059 \ln(RD/L)_t + 0.129 \ln(M/L)_t + e_t$$

(1.40)      (9.01)                      (4.81)                      (6.07)

장동구, “잠재GDP추정과 생산갭의 인플레이션 지표로서의 유용성 검토”, 『경제분석』 3권4호, 1997.11. p. 137.

50) 그러나 북한 국민소득의 추정방식을 고려하면 북·중무역이 북한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는 그 이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북한 국민소득은 북한 경제통계의 제약으로 불가피하게 북한 생산량에 남한의 가격, 부가가치율, 환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남한과 북한의 품질과 가격차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북한의 가격과 환율 등을 적용하여 북한의 국민소득을 추정하게 되면 기존의 추정치보다 작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만약 2000-2004년중 북한 국민소득이 한국은행 발표 추정치의 1/4이라 가정하면, 2000-2004년중 북·중무역의 증가는 경제성장률을 매년 약 5.5%포인트를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이 경우 2004년도 북한의 무역의존도는 약 70%에 달하게 되며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28%가 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 증대와 함께, 수입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수입에 따른 비용을 일정 정도 상쇄하는데 기인한다. 그 결과 대중국 무역적자가 크다 하더라도 수입된 원자재와 자본재가 생산에 기여하는 효과가 이를 부분적으로 상쇄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이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sup>51)</sup> 후진국의 경우 최소한의 자본재수입이 이루어져야 무역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일반이론이 성립되는데,<sup>52)</sup> 후진국의 경우라도 북한처럼 수입품이 주로 생산재로 구성되어 있고 그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크다면 무역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 (중국의 고도성장이 북한 궁핍화성장을 억제)

북한은 전형적으로 1차상품 위주의 수출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1차상품 위주의 수출구조를 유지하는 후진국의 경우 수출을 늘려도 궁핍해질 가능성이 있다.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손실이 경제성장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초과하여 후생수준이 전보다 악화되는 ‘궁핍화성장’(immiserizing growth)이 나타날 수 있다. 1차상품의 경우 기술발달로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수요가 가격비탄력적이라면 가격이 폭락하여 교역조건을 악화시킴으로써 나타나게 된다.

궁핍화성장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북한의 1차상품 수출단가 추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북한 1차상품의 수출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단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51) 한편 북한의 무역적자가 매우 큰데, 이를 해소하는 것은 대부분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적 소득으로서 해외교포의 송금, 북한방문비용, 해외 식당운영 수입, 중국 정부차원의 탕감, 그리고 미사일 및 마약의 밀거래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52) 개발도상국은 국내 생산자원의 완전활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재 수입이 요구되며 수입되지 않을 경우 국내자원은 파소고용상태가 되므로 경제성장이 제약된다.

<표 4-2>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단가 현황

(달러/kg)

HS코드	품목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030269	명태, 복어 등의 어류(신선 또는 냉장)	0.5	..	..	0.35	4.29	4.29	1.57
030624	꽃게, 대게 등(신선한 것)	1.52	2.47	1.21	4.93	4.27	6.95	6.64
030791	전복, 소라, 각종 조개류(산 것, 신선 또는 냉장)	0.7	0.68	0.54	0.79	0.88	1.61	2.74
260111	철광과 그 정광(배소한 황화철 제외)	0.02	0.02	0.01	0.01	0.02	0.03	0.05
270111	석탄/무연탄	0.01	0.01	0.01	0.02	0.02	0.02	0.03
720110	선철과 스피그라이즌/비합금선철	0.1	0.09	0.09	0.1	0.11	0.13	0.2
720449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0.06	0.05	0.06	0.05	0.06	0.06	0.09
440320	원목, 침엽수 (달러/m <sup>3</sup> kg)	52.15	50.21	49.01	49.46	69.56	61.73	53.99
440399	원목, 기타 (달러/m <sup>3</sup> kg)	84.85	72.78	189.42	297.16	51.93	82.92	91.4

출처: 中國海關統計;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조사결과 1998~2004년 기간 동안 북한이 수출하는 주요 수출상품인 꽃게, 어류, 조개류 등 어패류의 수출단가는 2~4배 정도 상승했으며, 철광, 선철, 폐철 그리고 석탄 등은 약 2배 정도 상승했다.

어패류의 경우는 한국을 비롯한 제3국의 수요와 연결되어 있으며 철광, 무연탄, 선철, 재용해용 폐철 등은 중국의 수요와 직결되어 있다. 어패류의 경우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하여 한국을 비롯한 제3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수출단가의 변화를 보면 어패류에 대한 수요가 2001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건설붐으로 고철 등 철강 원자재의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북한의 대중국 철강수출이 크게 증가하게 된 것이다.<sup>53)</sup>

53) <표> 북한 대중국 주요 수출품의 수출물량 추이(1998-2004년) (톤)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어 류	-			3	1,416	5,642	36,454
꽃 게	14	26	61	1,344	4,800	11,163	10,927
조개류	227	1,499	365	27,038	95,389	52,188	31,820
철 광	67,800	22,150	52,900	117,100	171,900	229,033	876,160
무연탄	34,400	15,100	9,000	85,300	369,400	771,400	1,636,167
선 철	14,040	8,144	4,622	106,430	104,818	113,485	155,155
폐 철	33,083	41,460	20,550	20,780	78,150	175,383	199,989

출처: 中國海關統計;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다음으로 주요 수입품목의 수입단가를 보면, 원유가격이 2.5배 이상 상승했으며 돼지고기, 석탄, 강재, 옥수수 등은 1.5배 내외의 상승을 보이고 쌀과 칼라TV는 하락하고 있다.

<표 4-3>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의 수입단가 현황

(달러/kg)

HS코드	품목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70900	원유	0.10	0.10	0.19	0.19	0.16	0.21	0.26
020329	돼지고기	1.19	0	1.00	1.01	1.08	1.21	1.55
271019	석탄					0.25	0.28	0.38
852812	칼라TV (달러/대)	158.54	110.79	118.92	92.84	87.21	83.39	75.21
271011	석유조제품/경질석유 및 조제품					0.22	0.29	0.40
720837	평판압연제품(두께 4.75-10mm)	0.27	0.26	0.28	0.25	0.25	0.32	0.49
100630	쌀	0.32	0.28	0.26	0.22	0.20	0.19	0.24
720836	평판압연제품(두께 10mm 초과)	0.29	0.28	0	0.25	0.28	0.39	0.41
100590	옥수수	0.12	0.11	0.10	0.11	0.10	0.11	0.14

출처: 中國海關統計;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 및 수입품목의 수입단가를 비교해본 결과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북한산 원자재에 대한 수요확대와 남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북한산 어패류에 대한 수요증가가 북한의 교역조건 악화를 억제해왔다고 할 수 있다.<sup>54)</sup> 한편 중국의 거시경제지표는 최근 북한에 대해서만 무역과 투자가 증가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표 4-4> 중국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E	2006E
경제성장률	7.8	7.1	8.0	7.3	8.0	9.1	9.5	9.5	8.5
수출증가율	0.3	6.3	27.8	6.8	22.3	34.6	35.4	25.0	15.0
수입증가율	-1.5	18.3	35.8	8.2	21.2	39.8	36.0	18.0	17.0
FDI증가율	0.9	-11.4	0.7	15.2	12.4	1.5	13.3	-1.5	-2.0

출처: 중국인민은행; IMF, Global Insight; 한경비즈니스 대전망 2006

54) 교역조건을 나타내는 지수는 순상품교역조건(수출단가지수/수입단가지수\*100), 총상품교역조건, 소득교역조건((수출단가지수/수입단가지수)\*수출물량지수), 요소교역조건 등이 있는데, 수입단가 및 수입물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수출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그에 따라 수출량도 증가하면 교역조건이 개선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북한이 1차상품 위주의 수출을 해왔다 하더라도 공핍화성장을 낳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향후 남한의 북한산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중국의 고도성장이 지속되는 한 북·중무역이 북한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과 같은 1차상품의 수출구조를 유지하는 한 공핍화성장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004년의 경우처럼 돼지고기, 석탄 등 일부 수입품목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교역조건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으며 장기적으로 폐철뿐만 아니라 수산자원과 광물자원이 고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2. 시장경제화 진전에 미치는 영향

### 가. 북·중무역과 시장경제 확산

#### (외화별이사업소의 북·중무역)

지금까지 북한의 시장경제는 정부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상거래의 확대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왔는데, 이를 결정적으로 촉진해온 것이 북·중무역이다. 만약 북한이 고립된 상황이었다면 북한 자체의 개인생산 발전의 한계 때문에 시장경제가 매우 더디게 진전되었을 것이다.

1990년대 들어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면서 국가의 배급 및 임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 않아 주민들은 개인생산과 시장에서의 상거래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로 인해 국가에 의한 시장화가 아니라 주민들에 의한 ‘자생적인 시장화’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특히 식량배급이 완전히 중단되었던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기’ 이후에는 ‘전주민의

상인화'라 할 만큼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시장활동과 연계되지 않고는 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sup>55)</sup>

한편 북한은 경제위기에 처하면서 무역권한이 분산되고 무역계획이 이완되는 등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외화난에 직면하면서 모든 무역회사는 원칙적으로 정무원 산하의 대외경제위원회에 의해 관리·감독받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동당과 군부의 주요 기관들이 무역회사를 소유하고 각자가 독립채산방식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 기관들은 무역회사를 통하여 외화를 벌어들여 자체경비 및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였다.<sup>56)</sup>

더 나아가 1992년 「새로운 무역체계」를 계기로 대외무역 권한이 분산되어 대외무역 업무를 무역회사만이 아니라 수출품 생산자에까지 확대하여 자체계획을 세워 직접 수출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무역은 국가의 기업소에 대한 재정지출이 줄어든 데 따른 기업소들의 '자력갱생'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셈이다.<sup>57)</sup> 그 결과 생산을 담당하는 지방단위 기관도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국가의 계획적인 지도 아래 독자적인 대외무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 무역에 있어서 국가계획위원회의 기능 또한 상당히 축소되었다.

더욱이 경제난이 심화되는 1990년대 중반에는 공장·기업소, 당과 군대 등의 기관만이 아니라 대학, 작가동맹사업소, 혁명사적답사관리소 등 대부분 기관들이 자체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외화벌이사업소를 만들어 외화벌이에 나서게 되었다. 이처럼 '전 기관의 외화벌이화'라 할 만큼 무역은 북한 경제의 핵심적인 활동으로 자리잡게 된 것인데, 북한에서 외국과의 무역은

---

55) 이에 대해서는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통일문제연구』, 2005 하반기호, 통권 44호를 참조

56) 임강택,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의 변화전망", 통일연구원, 1998 참조

57)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1993년 이후 재정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되었는데 그에 따른 국가의 기업소와 기관들에 대한 재정지출 감소를 기업소와 기관들의 외화벌이사업으로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자력갱생이 강조되는 이러한 무역제도의 변화와 함께 기업소와 기관들에 대한 재정지출을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재정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던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재정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는 문성민, "북한 재정제도의 현황 및 변화추이", 한국은행, 2004를 참조.

공식적으로 국가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역회사의 무역과 함께 자체 계획에 의한 외화별이사업소의 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외화별이사업의 주된 무역상대는 중국의 무역회사들이며, 국내 상인, 인민반 또는 공장·기업소와 거래관계를 맺고 수출할 물품들을 수집하고 수입된 물품들을 시장에 내다팔게 된다. 수출품의 수집과정을 보면, 지역 주민들이 수출할 품목을 모아 인민반과 공장·기업소에 넘겨주고 이들은 이를 모아 해당 지역 외화별이사업소에 건네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그 대가로 주민들은 물질적 대가를 받는다.<sup>58)</sup> 이와 함께 수입물품 중 일부(특히 쌀과 밀가루)를 외화별이사업소 종업원에게 임금 대신 제공하고 그것을 시장에서 수출할 수 있는 생산물로 교환해오도록 하기도 한다.<sup>59)</sup>

외화별이사업소는 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이 기업소나 기관의 하부 단위로 등록하고 사람들을 고용하여 무역을 통해 수입을 얻는 대신 그 일부를 상부에 상납하게 된다.<sup>60)</sup> 외화별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로 그 지역 당원이거나 토대가 좋은 사람에게 제한된다. 그는 사전에 대체로 중국측 무역상대를 확보하고 무역품목, 방식 등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원하는 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그에 기초하여 해당기관은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승인이 나면 그 기관 소속의 외화별이사업소로 인정되고 사무실 임대 및 노동자 고용 등에 있어 해당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서 외화별이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당은 외화별이사업소에 세포비서 또는 초급당비서를 파견하여 외화별이사업의 일탈을 감시한다.

---

58) 외화별이사업에는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균중외화별이’와 당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하는 ‘충성외화별이’가 있다. 수출품의 수집과정에 대한 구체적 사례는 양문수, “자립적 지방경제의 재구조화”, 『변화하는 북한 변화하지 않는 북한』(북한연구학회 2004년 춘계학술회의 발표문), pp. 29-30 참조.

59) 1990년부터 탈북하는 2002년까지 봉화총수출품가공사업소, 비로봉무역회사 등에서 외화별이에 종사했던 탈북자 S00의 증언.

60) 탈북자 S00의 증언에 따르면 구체적인 분배는 기관과 외화별이사업소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며 수입의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을 상납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외화별이사업자에 따르면 외화수입의 20%를 본사에 상납하고 나머지 80%를 본사 직원의 임금, 외화별이 사업소 직원 임금, 기타 구역 행정사무소에 분배했다고 한다.

그러나 각 부문 간의 경쟁 과열, 불법적 외화벌이에 따른 부정과 부패<sup>61)</sup> 그리고 자본주의 사상 유입의 통로로서의 기능 등 부작용이 만연하자 북한 당국은 외화벌이사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게 되었다. ‘무역일꾼’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작업을 추진하여 상당수 부패 관료들을 숙청하였으며, 여러 기관에서 운영해 온 소규모 ‘외화벌이 사업소’를 “자본주의 사상에 물든다”는 이유로 폐쇄하기도 하였다.<sup>62)</sup> 또한 북한은 1998년 대외경제위원회를 폐지하고 내각에 ‘무역성’을 신설하여 무역성의 통일적인 관리를 받도록 하였다. 동년 3월 「무역법」을 발표하여 무역회사의 설립과 관련한 절차를 법제화함으로써 그 동안 법적인 통제장치 없이 난립한 무역회사의 설립과 문란해진 무역질서를 체계화, 무질서와 낭비요소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무역성 중심의 무역관리체계가 실현되면서 많은 외화벌이단위의 사업들이 정리되었으나 내각이 통제하기 힘든 당과 군 등 일부 권력기관 산하의 외화벌이사업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북·중무역과 시장거래의 연계)

변경 무역의 물자 통관은 소규모 세관인 통상구(通商口, 口岸이라고도 함)를 통해 정식으로 이루어진다. 통상구는 두만강 유역에 난평(南坪), 싹허(三合), 투먼(圖們) 등 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압록강 유역에는 단둥(丹東), 지안(集安), 창바이(長白) 등 5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외 선박을 이용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3년부터 중국과의 변경무역에 참여한 북한 선박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sup>63)</sup>

61) 북한에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외화벌이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는 정상적으로 거래품목과 액수를 기록하지 않거나 과소보고 함으로써 자신의 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그에 따른 단속과 처벌로 인해 3년 이상 외화벌이를 유지하는 경우가 드물며 반면 이를 모면하기 위해 상부에 상납하는 관행이 만연해있다고 한다.

62) 북한당국은 1998년 8월부터 북한 내부에서 ‘비사회주의현상’이 특히 심한 지역을 선정, 대대적인 검열을 실시하였는데 그 주 대상은 장사꾼들이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영훈, “농민시장”, 『북한의 경제』, 한울, 2005, p. 180을 참조.

63) 2004년 10월까지 중국과의 국경무역에 가담한 북한 선박은 총 56척으로 2002년도 같은 기간에 비



이들 통관구중 단동은 북·중간 거래가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북·중무역의 50%이상이 이곳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단동시가 북한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북중 압록강 대교 건설, 경의선 철도 중 북한 철도구간에 대한 중국의 원조프로젝트 추진, 대동항 확장과 북-중해상운송로 재개설, 대북한 자유무역지대 설립 등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있어<sup>64)</sup> 향후 단동을 통한 북·중무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산 물품이 북한시장으로 유입되는 주된 통로는 단동-신의주-평양과 무산·회령-나진·선봉 그리고 청진(-함흥-평양)이며, 그 외 혜산-길주 또는 함흥의 루트가 있다.

중국산 물품들은 이들 주요 루트의 거점을 이루는 신의주의 채화시장, 혜산의 혜산시장, 회령의 회령시장, 무산의 광산시장, 나진·선봉의 동명시장, 청진의 수남시장, 길주의 합천시장, 함흥의 해상시장, 원산의 갈마장 등을 거치면서 전국 300여개 시장으로 확산된다.

북한에서 물품의 거래는 국가상업망과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각 도·시·군에 식료품의 유통을 담당하는 상업관리소와 생필품의 유통을 담당하는 도소매관리소가 있어 이들이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취합하고 이를 다시 각 국영상점에 배분하며 국영상점은 이를 주민들에게 판매한다. 한편 종합시장에는 개인매대와 공장·기업소의 직매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의 무역회사를 통해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들은 국가계획기관을 통해 상업관리소와 도소매관리소를 거쳐 국가상업망으로 유입되기도 하고 무역회사가 직영하는 시장의 직매점으로 유입되기도 한다. 한편 외화벌이사업소의 무역활동에 의해 수입된 물품들은 계획기관의 분배망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 결과 외화벌이 단위를 통해 유통되는 수입물품들과 국가상업망에서 빠져나온 물품들은 시장의 개인매대를 통

---

해 18.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04.12.9

64) 국무원 관공청 제36호 문건 <동북노공업기지의 대외개방 확대에 대한 실시의견>(2005년 6월)과 후속조치로 나온 단동시 발전개혁위원회의 8월 10일자 보고서

해 주민들에게 판매된다.

<그림 4-1> 중국산물품이 북한시장으로 유입되는 경로



(북·중무역과 물가)

북한의 공장가동률 20~30%가 시사하듯이 생산재뿐만 아니라 소비재 기반이 와해되어 북한이 자체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로 인해 수입을 통해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공급부족에 따른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여타 국가들과의 무역과 달리 북·중무역은 북한의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수입상품이 생산재와 소비재를 망라하고 있어, 북·중무역은 북한의 공급부족을 대체함으로써 공급부족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있다.<sup>65)</sup> 최근 북한물가상승의 주된 원인도 실물부문의 공급부족이라기보다 7.1조치 이후 약 20배 인상된 임금상승 등에 따른 화폐발행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2004년도 북한의 시장쌀값 상승의 주된 요인 중의 하나가 중국의 2003년도 작황악화에 따른 수입감소였던 것처럼<sup>66)</sup> 북·중무역의 감소는 북한의 시장물가 상승으로 직결된다. 이처럼 북·중무역은 북한의 시장경제 변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나. 무역확대를 위한 중국의 유통부문 투자

중국의 북한 유통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투자기업들이 북한의 시장경제 확산의 주체가 되고 있다. 2002년 6월 길림성 훈춘 길림성 무역회사가 북한과 합작해 량강도 혜산시에 량순백화점을 설립, 운영해 오고 있다.<sup>67)</sup>

65) 통계자료 부족으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우나 북한물가를 크게 좌우하는 쌀의 시장가격과 환율 변동을 볼 때, 양자가 거의 같이 변화하고 있어(그 결과 1kg당 쌀가격이 0.3달러로 크게 변하고 있지 않음) 최근의 물가상승은 화폐발행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 판단할 수 있다.

<표> 북한의 쌀가격 및 시장환율 추이  
(북한원/kg, 북한원/달러)

	02.7(C)	03.2	03.11	04.4	04.12	05.4	05.8(D)	D/C
쌀가격(A)	45	150	190	370	700	800	800	17.8
대미달러환율(B)	150	400	1,000	1,200	1,850	2,550	2,460	16.4
A/B	0.3	0.4	0.2	0.3	0.4	0.3	0.3	1.1

출처: 안예홍, “7.1조치 이후 북한의 인플레이션 발생 원인과 정책당국의 대응”, 『북한경제리뷰』, KDI, 2005. 9, p. 10.

66) 자세한 내용은 이영훈,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전망: 가격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2005, p. 33 참조.

67) <연합뉴스>, 2002. 12.17

2004년 5월에는 선양(瀋陽)시 무역촉진회와 조선대성그룹이 평양시에 공동으로 건설한 <조선-중국상품경영판매센터>가 영업을 시작했는데, 중국측은 “본 사업이 양국간 무역을 촉진하고 북한시장에서 중국상품의 점유율과 영향력을 높이는 동시에 북한시장의 번영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sup>68)</sup>

2005년 5월 중국의 절강(浙江)성 동양귀화이(東陽國匯)무역유한공사가 평양제1백화점 내 3개층 매장 경영권을 취득했다. 동양귀화이는 절강성에서 일용잡화용품을 들여와 저가에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귀화이는 또 이번 백화점 진출을 기반으로 평북 신의주와 남포, 해주 등 지방도시에도 이와 유사한 매장을 설립할 계획이다.<sup>69)</sup>

이와 함께 2005년 6월에는 북한과 중국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도·소매 물품시장인 ‘보통강 공동 교류시장’이 문을 열었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통강(대동강)물자교류시장은 북한이 토지를 제공하고, 중국 4개 기업(조선무역성 산하 중앙수입물자교류총회사, 요녕태성국제무역유한회사, 단동환구무역유한회사, 북경쌍악그룹, 단동전력설비회사)의 합작투자 형태로 운영되며 수입중 일부를 북한에 분배하기로 하였다.<sup>70)</sup> 7개 매장에 20여개 중국회사가 들어와 100% 중국산 제품을 판매하는데, 생활소비품도 팔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장·기업소의 가동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 기계제품 등을 공급하고 있다. 이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은 현지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보다 다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며 현금, 은행이체를 통한 결제 이외에도 물물교환을 할 수도 있다. 한편 북한정부도 가능한한 외부에서 구입하지 말고 이 시장에서 원자재를 구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71)</sup>

68) 약 2만여 종의 상품이 도매 및 소매로 판매되며 취급상품의 60%는 선양시가 속한 요녕성 성 제품이며 이 센터가 시장과 창고, 물류운송 등 3개 부문으로 구분된다. <연합뉴스>, 2004.5.10

69) 지난해 이 백화점의 매장 경영권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던 라오닝(遼寧)성의 중취(中旭)집단(그룹)은 북한측과 이견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KOTRA, 2005.9.7)

70) 아직 이익분배, 세금 등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수입 중 일부를 북한과 분배하기로 하였다. 50만원 이상 판매할 경우 8%, 100만원 이상 판매할 때 5% 수입을 북한측에 지불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고 한다.

71) 劉洪威(丹東市對外貿易經濟合作局 副局長)과의 면담. 최근 조선중앙수입물자교류총회사는 중국 위

2005년 10월에는 북한당국과 훈춘시가 중국측 사튀쯔(沙陀子) 세관 부근과 북측 류다섬(함경북도 새별군)에 공동으로 국제 자유무역시장을 개설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sup>72)</sup>

이처럼 북·중무역은 외화벌이사업을 매개로, 중국의 유통부문에 대한 투자는 직접적으로 북한 시장경제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결론)

사회주의국가들의 지원에 의존하던 북한의 ‘자립적 재생산구조’는 1990년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계기로 새로운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북·중무역은 이러한 재편과정을 주도하고 있는데, 북·중무역이 북한의 총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1.5%에서 2004년 39.0%로 증가했으며 특히 2000년 이후 북·중무역의 증가분은 전체 증가분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북·중무역의 증가는 2000년 이후 매년 약 3.5%포인트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낳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0년 이후 북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1%임을 감안할 때, 북·중무역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부(負)의 성장을 계속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북·중무역의 북한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중국의 고성장으로 인해 북한의 1차상품 수출이 증가한데다 수입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 및 자본재가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취약한 무역경쟁력과 1차상품 위주의 수출구조로 인해 향후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

주에서 탈피해 유럽,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근동 국가들로부터도 무역 거래 및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05.12.13

72) <연합뉴스>, 2005.12.7

‘궁핍화성장’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북한의 국가재정이 고갈되면서 무역회사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무역에 종사하지 않던 일반 생산기업과 다수의 기관들이 무역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들은 주로 중국과 거래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수입되는 중국산 물품들이 북한 시장거래의 약 80%를 점할 정도로 시장경제 확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주로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부족한 생산재와 소비재를 확보하고 있는데, 특히 대중국 무역이 집중되고 있는 동북3성에 대한 무역의 의존도가 크다. 그 이유는 중국산품의 가격경쟁력, 지리적 요인, 변경무역의 관세혜택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북·중무역은 북한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있으며 북한의 시장경제와 직접 연계되어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역이 확대되면서 북한경제는 중국 특히 동북3성의 경제권으로 편입되고 있다. 중국경제가 고성장을 지속하는 한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정책적 시사점)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중무역은 북한 주민들의 경제활동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경제성장 및 시장경제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대북 경제봉쇄와 같은 대북 억압정책은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한편 북·중무역은 중국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민간 무역회사들의 이윤추구에 의해 전개되어 왔다. 오히려 중국정부는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에 대해 정책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외부의 개입을 수용하려고도 않겠지만, 대북정책은 인위적인 개입 또는 억압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무역 및 투자확대를 통해 북한이 안정적으로 시장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최근 북·중무역이 크게 증가하고 중국의 대북투자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중국의 의도적인 정책의 결과로 우려하는 경향이 없지 않으나, 중국의 대북한 무역과 투자는 중국 전체 무역과 투자 추이와 거의 유사하게 변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중국경제 성장의 자연스런 결과라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은 중국의 의도보다는 중국의 고성장이 한반도에 미치게 될 영향이며, 향후 남북경협이 방향과 실천방안도 이러한 중국의 영향을 고려하여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안정적인 체제전환과 경제성장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중국 간 높은 상호 경제의존도를 활용하여 한국-북한-중국 3자간 경협을 통해 상호이익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교역은 북·중무역과 달리 지원성 무역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쌀과 비료 등 대북지원의 대부분은 북한정부를 통해 배분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북한의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도 크지 않다. 남북교역의 이러한 특징들은 분단과 경제력 격차 등에 기인한다. 즉, 남북교역에서 상업적 거래의 부진은 분단으로 인해 지리적 인접성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는 데다 무관세혜택이 있어도 남북한 가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교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제도정비와 함께 수송 및 정보 인프라의 구축 등 분단장벽을 허무는 작업들이 요구되며, 개성공단을 이들 사업을 매개할 수 있는 경제적 요충지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물론 가격차 때문에 북한의 남한상품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지 않겠지만 북한상품에 대한 남한의 수입은 크게 증가할 것이며, 어패류 등에 대한 중국 경유의 보세무역이 남한 경유의 보세무역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크다. 더 나아가 중국정부가 밝힌 바 있는 경의선 철도복구 지원사업 등에 한국의 참여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북한-동북3성 간의 무역 및 투자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성장을 자연스럽게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부록 1> 북·중무역 관련 주요 통계

<부표 1> 북한의 수출상품구조(1998-2004)

(백만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동물제품	61.0	87.8	<b>97.9</b>	<b>158.4</b>	<b>261.6</b>	<b>287.7</b>	<b>336.6</b>
식물제품	57.7	22.5	30.3	42.0	28.5	24.5	27.5
광물성생산물	42.6	26.6	42.3	50.5	69.7	55.5	<b>152.3</b>
화학공업,플라스틱	28.3	39.9	44.1	44.7	43.1	31.2	38.8
목제품	17.8	16.2	11.9	5.6	10.2	15.2	16.0
섬유제품	148.1	130.6	137.4	140.5	123.0	133.1	114.9
귀금속류	20.5	21.4	9.6	14.1	14.5	16.0	5.7
비금속류	52.6	46.5	43.3	60.2	58.3	89.7	164.3
기계, 전기전자	90.0	81.3	103.2	97.9	83.9	93.1	121.7
기타	40.8	42.1	38.7	36.4	43.5	31.1	42.3
합계	559.3	515.0	558.8	650.3	736.2	777.0	1,020.2

출처: 中國海關統計;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호

<부표 2> 북한의 수입상품 구조(1998-2004)

(백만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동물제품	174.6	101.3	<b>20.3</b>	<b>73.9</b>	<b>103.4</b>	<b>107.9</b>	<b>159.5</b>
식물제품			<b>159.0</b>	<b>221.0</b>	<b>118.3</b>	<b>120.5</b>	<b>140.4</b>
유지,조제식료품	64.2	58.2	89.1	89.9	74.9	96.1	<b>173.1</b>
광물성생산물	150.8	141.0	<b>171.2</b>	<b>231.1</b>	<b>235.8</b>	<b>338.0</b>	<b>409.6</b>
화학공업제품	81.1	96.4	108.4	123.4	122.0	104.3	106.4
플라스틱제품	39.4	51.0	67.5	66.0	65.9	70.7	78.1
섬유제품	88.1	127.1	171.9	203.9	158.4	128.1	93.2
비철금속	62.1	59.0	85.2	100.4	88.1	172.7	128.4
기계류	90.9	135.6	205.1	243.8	234.8	282.4	<b>262.9</b>
차량	74.8	102.2	146.2	88.4	76.0	61.8	77.3
기타	57.1	92.7	182.6	178.5	246.7	131.9	208.1
합계	882.9	964.6	1,406.5	1,620.3	1,524.3	1,614.4	1,836.9

출처: 中國海關統計;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호



<부표 3> 북한의 대중국 품목별 수출 현황(1998-2004)

(천달러)

HS	품목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01	산동물	304	127	83	4	-	-	-
02	육류	-	-	-	-	-	-	-
03	어패류	2,748	5,755	4,047	47,977	143,016	206,931	261,231
04	낙농품	-	3	-	-	5	24	-
05	동물성생산물	19	27	26	125	143	230	257
06	산수목,꽃	1	2	-	3	5	8	4
07	채소	667	984	564	1,427	4,120	1,552	2,323
08	과실,견과류	624	281	98	3,828	855	4,437	4,720
09	커피,향신료	20	1	2	372	181	156	53
10	곡물	-	-	-	-	-	24	7
11	밀가루,곡분	-	-	0	2	33	105	110
12	종자,인삼	1,792	1,176	901	22,490	10,025	7,791	6,746
13	식물성엑스	-	1	17	10	210	105	354
14	식물성생산물	13	4	-	13	44	2	342
15	동식물성유지	-	-	-	102	191	26	51
16	육,어류제품	33	-	8	43	287	24	101
17	당류설탕과자	-	-	-	-	-	-	-
18	코코아	-	-	-	-	-	-	-
19	곡류곡물제품	-	-	-	15	11	4	-
20	채소과실제품	5	5	12	9	32	204	130
21	조제식품	9	-	-	144	194	675	21
22	음료주류	25	47	42	36	24	13	12
23	사료	-	-	-	-	1	-	-
24	연초	-	-	-	-	-	-	-
25	토석류,소금	281	164	109	298	1,534	718	1,083
26	금속광물	5,946	2,415	2,607	6,434	8,537	14,958	58,909
27	광물성연료	1,502	2,339	3,416	4,318	11,295	17,250	52,973
28	무기화학품	264	185	139	56	46	80	444
29	유기화학품	63	-	15	-	-	17	2
30	의료용품	0	-	-	-	-	-	-
31	비료	25	-	-	-	-	-	-
32	염료,페인트	7	85	3	1	65	-	14
33	향료,화장품	0	9	-	2	36	-	2
34	비누,왁스	-	-	-	-	-	98	9
35	단백질,전분	0	20	-	-	6	-	-
36	화약류,성냥	-	-	-	-	-	12	-
37	필름,인화지	-	6	-	-	-	-	-
38	화학공업제품	6	9	-	32	29	58	26
39	플라스틱	127	476	1,535	297	533	887	845
40	고무	26	-	1	75	3	148	268

HS	품목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41	가죽	97	4	28	111	-	-	23
42	가죽제품	2	-	-	8	1	77	41
43	모피제품	57	75	54	113	191	108	24
44	목재	15,692	13,837	9,925	4,640	9,303	13,615	14,665
45	코르크	2	0	1	-	-	-	-
46	조물제품	160	-	-	14	122	117	72
47	펄프	37	96	-	82	85	10	20
48	지, 판지	30	55	42	0	1	177	9
49	서적, 신문	2	2	5	0	1	-	-
50	견	898	862	2,273	1,370	1,616	2,905	2,731
51	양모, 수모	1	-	11	-	-	10	-
52	면	-	27	41	15	34	48	43
53	식물성섬유	-	-	1	-	17	-	8
54	인조필라멘트	0	61	124	75	74	4	85
55	인조스테이플	2	-	84	186	70	119	12
56	워딩, 부직포	-	-	-	1	9	19	50
57	양탄자	0	1	-	-	-	4	-
58	특수직물	0	10	8	8	135	-	145
59	도포직물	4	6	4	1	-	29	87
60	편물	130	2	1	13	9	11	15
61	편물제의류	154	-	37	66	2,842	2,200	3,559
62	비편물제의류	0	-	1	26,773	38,261	52,237	49,085
63	기타섬유제품	0	-	-	-	70	82	10
64	신발	-	-	-	22	52	42	18
65	모자	-	-	-	-	156	28	36
66	우산, 지팡이	-	-	-	-	-	-	-
67	우모, 인모제품	-	-	-	-	-	-	0
68	석, 시멘트	1	3	3	-	4	79	49
69	도자제품	0	1	3	0	29	2	10
70	유리	0	-	-	-	0	0	-
71	귀석, 귀금속	760	-	2	5	13	11	17
72	철강	10,511	9,756	8,662	23,670	27,860	46,796	74,973
73	철강제품	20	53	2	6	2	92	170
74	동	915	36	9	6	5	630	337
75	니켈	-	-	-	-	-	434	1,224
76	알루미늄	1,479	558	138	258	392	569	1,160
77	(유보)	-	-	-	-	-	-	-

HS	품목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78	납	904	1,133	1,047	995	1,309	1,082	3,031
79	아연	296	202	122	168	354	13,523	34,604
80	주석	-	-	-	-	0	-	-
81	기타금속	-	-	0	-	-	3	-
82	금속공구	-	-	18	12	5	33	24
83	금속제품	3	-	-	0	3	62	125
84	기계류	3,727	305	137	406	573	354	780
85	전기제품	485	56	84	19,372	5,432	1,987	2,424
86	철도차량	7	-	-	-	-	-	-
87	일반차량	-	-	-	-	-	-	0
88	항공기	-	-	-	-	-	-	-
89	선박	-	-	231	-	-	1,296	1,418
90	광,정밀기기	16	2	1	7	5	19	36
91	시계	0	-	-	-	-	-	-
92	악기	178	306	482	267	172	194	-
93	무기화학품	-	-	-	-	-	-	-
94	가구	2	-	-	-	34	0	2
95	완구운동용구	-	-	-	1	-	-	20
96	잡품	0	2	1	7	152	-	6
97	예술공동품	8	155	6	3	8	-	12
	총계	51,089	41,722	37,214	66,797	270,863	395,546	582,193

출처: 中國海關統計;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부표 4> 북한의 대중국 품목별 수입 현황(1998-2004)

(천달러)

HS	품목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01	산동물	557	217	189	422	89	106	150
02	육류	2,828	1,265	1,474	6,701	10,372	63,623	140,576
03	어패류	15	88	559	4,021	8,729	16,836	4,843
04	낙농품	427	133	235	600	537	107	84
05	동물성생산물	189	350	716	1,128	2,191	1,295	1,034
06	산수목, 꽃	36	5	8	19	127	26	73
07	채소	3,238	2,542	2,249	3,470	3,060	5,065	7,442
08	과실, 견과류	1,888	1,729	2,353	1,843	3,732	4,841	5,597
09	커피, 향신료	83	20	44	432	266	124	587
10	곡물	51,433	43,706	34,049	62,611	29,910	49,961	15,275
11	밀가루, 곡분	24,863	10,096	6,886	10,858	10,044	8,062	14,439
12	종자, 인삼	17,643	10,588	10,803	21,459	10,652	10,266	12,092
13	식물성엑스	-	20	4	6	41	5	18
14	식물성생산물	337	329	38	134	3	-	72
15	동식물성유지	9,249	5,841	1,625	1,066	616	2,468	1,557
16	육, 어류제품	91	109	408	407	185	1,971	2,435
17	당류설탕과자	1,473	1,087	731	1,392	869	1,046	2,519
18	코코아	216	175	277	166	255	262	327
19	곡류곡물제품	891	521	816	762	891	1,139	4,183
20	채소과실제품	39	108	308	348	293	476	830
21	조제식료품	946	130	177	381	162	409	162
22	음료주류	3,268	1,891	3,572	4,553	4,392	1,622	4,743
23	사료	867	1,379	1,402	3,283	4,187	4,552	6,259
24	연초	3,918	2,344	2,663	5,517	9,486	9,171	10,481
25	토석류, 소금	2,324	1,574	2,703	1,871	3,333	2,434	3,404
26	금속광물	2,616	4,093	2,108	369	685	40	146
27	광물성연료	84,790	79,499	117,893	161,800	117,969	180,727	204,379
28	무기화학품	6,722	7,749	7,485	8,220	7,171	10,001	10,669
29	유기화학품	4,072	4,208	6,037	5,887	4,882	6,941	8,382
30	의료용품	1,127	122	396	172	215	367	691
31	비료	10,743	7,246	7,554	18,253	19,975	14,277	10,586
32	염료, 페인트	2,159	1,994	2,210	2,523	1,913	1,932	2,901
33	향료, 화장품	254	77	98	344	140	401	497
34	비누, 왁스	2,501	2,684	1,541	2,973	1,015	2,222	5,162
35	단백질, 전분	234	117	187	349	440	693	840
36	화약류, 성냥	916	47	185	458	556	410	-
37	필름, 인화지	267	248	735	1,541	1,716	1,974	1,892
38	화학공업제품	5,568	3,637	4,349	5,326	5,919	3,615	4,646
39	플라스틱	15,534	13,938	17,291	23,312	25,133	24,578	31,978
40	고무	7,196	5,576	7,066	9,285	6,648	6,301	7,726

HS	품목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41	가죽	139	104	252	379	93	110	12
42	가죽제품	133	131	552	166	813	324	546
43	모피제품	82	45	53	42	239	372	393
44	목재	348	267	1,100	853	1,061	1,021	1,117
45	코르크	-	-	-	4	-	3	-
46	조물제품	-	-	4	8	139	16	6
47	펄프	89	363	323	856	437	414	276
48	지, 판지	2,968	3,808	5,174	12,471	6,802	6,427	8,307
49	서적, 신문	2	-	0	18	135	909	582
50	견	-	-	185	-	18	-	-
51	양모, 수모	13	261	1,149	935	831	833	899
52	면	1,161	3,858	3,341	2,363	3,705	1,847	2,232
53	식물성섬유	681	390	171	482	1,832	327	325
54	인조필라멘트	8,448	4,557	5,912	6,131	9,723	14,590	18,003
55	인조스테이플	4,386	3,526	3,390	8,688	6,807	7,242	7,322
56	워딩, 부직포	2,225	2,874	3,156	3,156	3,391	3,963	4,631
57	양탄자	62	22	15	20	32	19	18
58	특수직물	474	1,299	1,558	834	1,092	986	1,446
59	도포직물	1,855	1,843	3,154	1,670	2,034	2,416	2,247
60	편물	480	234	516	383	1,027	960	1,029
61	편물제의류	950	926	7,151	4,335	4,033	3,622	4,787
62	비편물제의류	836	1,753	16,819	19,184	2,410	1,856	2,757
63	기타섬유제품	3,043	739	2,756	1,762	1,637	1,794	1,858
64	신발	922	1,727	2,712	2,473	2,276	3,476	4,149
65	모자	15	12	37	20	26	81	73
66	우산, 지팡이	1	49	69	81	123	193	297
67	우모, 인모제품	-	6	159	387	199	16	34
68	석, 시멘트	512	1,000	1,287	2,520	1,891	1,286	3,268
69	도자제품	526	596	846	1,760	2,470	3,262	7,322
70	유리	749	575	1,733	2,691	2,669	2,926	4,152
71	귀석, 귀금속	157	120	17	242	90	6	36
72	철강	12,302	14,557	22,743	22,133	20,781	20,688	39,649
73	철강제품	3,517	4,000	7,242	10,194	8,300	6,874	14,450
74	동	204	1,482	2,434	2,195	1,734	1,157	1,190
75	니켈	604	504	214	295	147	734	698
76	알루미늄	1,066	1,951	3,007	3,765	2,762	3,145	4,169
77	(유보)	-	-	-	-	-	-	-

HS	품목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78	납	184	199	805	577	83	35	28
79	아연	7	278	887	455	91	12	1,036
80	주석	58	15	77	64	108	90	430
81	기타금속	245	243	837	453	422	370	1,083
82	금속공구	517	270	220	323	294	309	370
83	금속제품	714	400	911	1,153	936	1,397	2,098
84	기계류	6,638	11,119	14,447	23,139	26,439	27,044	39,585
85	전기제품	9,694	13,443	21,010	23,410	27,482	39,581	45,791
86	철도차량	1,971	4,621	7,008	405	2,192	2,414	719
87	일반차량	9,815	6,941	28,784	18,681	7,947	8,640	18,252
88	항공기	16	33	-	-	32	-	-
89	선박	23	403	493	41	602	95	164
90	광,정밀기기	1,917	1,223	1,685	2,799	2,043	1,135	1,673
91	시계	14	12	127	21	491	320	326
92	악기	52	-	28	110	43	141	273
93	무기화학품	384	2,850	152	-	-	-	63
94	가구	1,045	623	1,901	1,996	1,586	2,318	4,016
95	완구운동용구	386	127	155	104	262	658	670
96	잡품	992	710	693	1,742	2,993	3,654	4,704
97	예술골동품	-	-	-	-	-	-	1
98		1,577	14,064	21,960	7,428	2,707	5,541	5,283
	총계	56,716	328,634	450,839	570,660	467,309	627,995	794,525

출처: 中國海關統計;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부표 5> 북한의 중국 각 성에 대한 수출 현황(1998-2004)

(백만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 Liaoning PE(遼寧省)	22	18	15	113	218	323	389
2 Jilin PE(吉林省)	21	20	18	25	34	49	105
3 Jiangsu PE(江蘇省)	0	0	0	0	3	7	36
4 Shandong PE(山東省)	2	1	0	3	3	6	25
5 Zhejiang PE(浙江省)	0	0	0	0	1	1	8
6 Hunan PE(湖南省)	0	0	0	0	0	0	6
7 Shanghai CY(上海)	0	0	0	3	1	2	5
8 Heilongjing PE(黑龍江省)	2	0	0	1	2	0	3
9 Guangdong PE(廣東省)	2	1	2	20	8	3	1
10 Hebei PE(河北省)	0	1	1	1	0	1	1
11 Anhui PE(安徽省)	0	0	0	0	0	0	0
12 Beijing CY(北京)	0	0	0	0	0	2	0
13 Tianjin CY(天津)	0	0	1	0	0	0	0
14 Henan PE(河南省)	1	0	0	0	0	0	0
15 Yunnan PE(雲南省)	0	0	0	1	0	0	0
기 타	1	1	0	0	1	2	3
총 계	51	42	37	167	271	396	582

출처: 中國海關統計;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부표 6> 북한의 중국 각 성에 대한 수입 현황(1998-2004)

(백만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 Heilongjing PE(黑龍江省)	69	56	94	138	111	160	204
2 Liaoning PE(遼寧省)	134	119	144	173	135	154	207
3 Jilin PE(吉林省)	46	50	72	92	82	98	95
4 Sichuan PE(四川省)	1	2	3	7	3	9	31
5 Shandong PE(山東省)	9	9	17	26	26	56	72
6 Henan PE(河南省)	3	5	5	7	9	31	34
7 Hebei PE(河北省)	9	14	15	13	10	15	12
8 Jiangsu PE(江蘇省)	15	9	25	29	21	26	33
9 Zhejiang PE(浙江省)	4	5	10	7	10	10	14
10 Beijing CY(北京)	16	16	14	24	12	5	11
11 Anhui PE(安徽省)	1	0	0	3	2	3	5
12 Guangdong PE(廣東省)	6	6	4	5	15	18	12
13 Tianjin CY(天津)	11	7	10	9	4	7	8
14 Shanghai CY(上海)	7	7	8	11	5	7	9
15 Chongqing(重慶)	-	-	0	0	0	0	2
16 Inner Mongolia AR(內蒙古自治區)	3	7	7	3	2	2	12
17 Hunan PE(湖南省)	3	3	7	3	2	5	10
18 Shanxi PE(山西省)	8	6	3	11	6	4	4
19 Yunnan PE(雲南省)	1	0	0	1	3	3	5
20 Hubei PE(湖北省)	1	2	5	3	3	3	5
21 Xinjiang AR(新疆緯吾爾自治區)	0	2	1	0	0	0	1
22 Fujian PE(福建省)	1	1	2	3	2	2	2
23 Guangxi ZhuanAR(廣西壯族自治區)	0	1	1	1	0	0	1
24 Shanxi PE(陝西省)	0	1	1	1	1	5	1
25 Jiangxi PE(江西省)	0	0	1	1	0	1	0
26 Gansu PE(甘肅省)	3	1	1	1	1	2	2
27 Guizhou PE(貴州省)	1	0	0	1	1	1	1
28 Ningxia Hui AR(寧夏回族自治區)	1	1	0	0	1	0	0
29 Hainan PE(海南省)	3	0	0	0	0	0	0
30 Qinghai PE(青海省)	0	1	1	0	0	0	-
총 계	357	329	451	571	467	628	795

출처: 中國海關統計;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부표 7> 중국의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 비교

원유(HS 27090000: Petroleum oils &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

	북한			남한		
	금액(US천\$)	수량(kg)	단가(US\$)	금액(US천\$)	수량(kg)	단가(US\$)
1998	48,400	503,931	0.096	343,802	3,581,023	0.096
1999	30,963	317,241	0.098	75,087	948,384	0.079
2000	75,570	389,236	0.194	121,440	683,031	0.178
2001	108,757	579,278	0.188	59,801	366,412	0.163
2002	76,468	472,167	0.162	90,307	684,487	0.132
2003	121,004	573,558	0.211	268,404	1,464,813	0.183
2004	139,326	531,785	0.262	302,329	1,445,685	0.209

코크스(HS 27040010: Coke & semi-coke)

	북한			남한		
	금액(US천\$)	수량(kg)	단가(US\$)	금액(US천\$)	수량(kg)	단가(US\$)
1998	3,530	81,264	0.043	57,477	1,305,160	0.044
1999	17,656	411,456	0.043	72,003	1,858,926	0.039
2000	3,619	100,550	0.036	86,603	2,357,425	0.037
2001	6,126	168,369	0.036	87,139	2,318,085	0.038
2002	2,297	65,818	0.035	86,165	2,194,975	0.039
2003	6,692	168,227	0.040	80,814	1,941,292	0.042
2004	391	8,581	0.046	182,941	1,967,518	0.093

옥수수(HS 10059000: Maize excl. seed)

	북한			남한		
	금액(US천\$)	수량(kg)	단가(US\$)	금액(US천\$)	수량(kg)	단가(US\$)
1998	23,148	195,606	0.118	297,244	2,555,819	0.116
1999	18,170	162,369	0.112	134,723	1,252,186	0.108
2000	20,371	196,634	0.104	601,070	6,023,584	0.100
2001	42,635	371,208	0.115	314,683	3,083,294	0.102
2002	14,728	140,515	0.105	611,875	6,137,595	0.100
2003	14,633	136,310	0.107	868,150	8,036,893	0.108
2004	5,546	39,338	0.141	171,928	1,318,339	0.130

쌀(HS 10063000: Semi-milled or wholly milled rice)

	북한			남한		
	금액(US천\$)	수량(kg)	단가(US\$)	금액(US천\$)	수량(kg)	단가(US\$)
1998	24,627	77,625	0.32	13	36	0.36
1999	24,096	86,247	0.28	-	-	-
2000	13,258	51,569	0.26	0	0.05	1.00
2001	19,120	88,797	0.22	34	96	0.35

밀가루(HS 11010000: Wheat or maslin flour)

	북한			남한		
	금액(US천\$)	수량(kg)	단가(US\$)	금액(US천\$)	수량(kg)	단가(US\$)
1998	24,355	115,173	0.21	5	20	0.25
1999	9,840	49,446	0.20	3	7	0.43
2000	5,872	32,325	0.18	127	256	0.50
2001	10,244	57,722	0.18	89	250	0.36
2002	24,355	56,976	0.17	285	883	0.32
2003	7,748	49,286	0.16	698	2,952	0.24
2004	13,979	67,763	0.21	1,365	4,878	0.28

대두(HS 12010091: Yellow soya beans excl. seed)

	북한			남한		
	금액(US천\$)	수량(kg)	단가(US\$)	금액(US천\$)	수량(kg)	단가(US\$)
1998	8,205	30,859	0.27	1,310	5,103	0.26
1999	9,225	44,562	0.21	4,416	13,860	0.32
2000	8,529	45,891	0.19	7,976	28,146	0.28
2001	9,486	45,394	0.21	10,163	39,470	0.26
2002	9,173	48,204	0.19	8,186	44,132	0.19
2003	7,905	34,718	0.23	9,724	49,399	0.20
2004	10,598	35,147	0.30	13,808	55,500	0.25

출처: 中國海關統計;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부표 8> 북한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부표 3, 4>를 근거로 계산)

HS	품목명	1998	2004	연평균	HS	품목명	1998	2004	연평균
01	산동물	- 0.29	- 1.00	- 0.70	50	견	1.00	1.00	0.98
02	육류	- 1.00	- 1.00	- 1.00	51	양모,수모	- 0.90	- 1.00	- 0.98
03	어패류	0.99	0.96	0.89	52	면	- 1.00	- 0.96	- 0.98
04	낙농품	- 1.00	- 1.00	- 0.94	53	식물성섬유	- 1.00	- 0.95	- 0.99
05	동물성생산물	- 0.81	- 0.60	- 0.80	54	인조필라멘트	- 1.00	- 0.99	- 0.98
06	산수목,꽃	- 0.97	- 0.90	- 0.78	55	인조스테이플	- 1.00	- 1.00	- 0.98
07	채소	- 0.66	- 0.52	- 0.43	56	워딩,부직포	- 1.00	- 0.98	- 0.99
08	과실,견과류	- 0.50	- 0.09	- 0.36	57	양탄자	- 0.99	- 1.00	- 0.94
09	커피,향신료	- 0.61	- 0.84	- 0.49	58	특수직물	- 1.00	- 0.82	- 0.94
10	곡물	- 1.00	- 1.00	- 1.00	59	도포직물	- 1.00	- 0.93	- 0.98
11	밀가루,곡분	- 1.00	- 0.98	- 0.99	60	편물	- 0.57	- 0.97	- 0.92
12	종자,인삼	- 0.82	- 0.28	- 0.41	61	편물제의류	- 0.72	- 0.15	- 0.61
13	식물성엑스	-	0.90	0.41	62	비편물제의류	- 1.00	0.89	- 0.02
14	식물성생산물	- 0.93	0.65	- 0.17	63	기타섬유제품	- 1.00	- 0.99	- 0.97
15	동물성섬유지	- 1.00	- 0.94	- 0.90	64	신발	- 1.00	- 0.99	- 0.99
16	육,어류제품	- 0.46	- 0.92	- 0.70	65	모자	- 1.00	- 0.34	- 0.59
17	당류설탕과자	- 1.00	- 1.00	- 1.00	66	우산,지팡이	- 1.00	- 1.00	- 1.00
18	코코아	- 1.00	- 1.00	- 1.00	67	우모,인모제품	-	- 1.00	- 0.86
19	곡류곡물제품	- 1.00	- 1.00	- 0.99	68	석,시멘트	- 0.99	- 0.97	- 0.98
20	채소과실제품	- 0.77	- 0.73	- 0.78	69	도자제품	- 1.00	- 1.00	- 0.99
21	조제식료품	- 0.98	- 0.77	- 0.55	70	유리	- 1.00	- 1.00	- 1.00
22	음료주류	- 0.99	- 0.99	- 0.98	71	귀석,귀금속	0.66	- 0.35	- 0.41
23	사료	- 1.00	- 1.00	- 1.00	72	철강	- 0.08	0.31	0.02
24	연초	- 1.00	- 1.00	- 1.00	73	철강제품	- 0.99	- 0.98	- 0.99
25	토석류,소금	- 0.78	- 0.52	- 0.67	74	동	0.63	- 0.56	- 0.59
26	금속광물	0.39	1.00	0.57	75	니켈	- 1.00	0.27	- 0.71
27	광물성연료	- 0.97	- 0.59	- 0.86	76	알루미늄	0.16	- 0.56	- 0.60
28	무기화합품	- 0.92	- 0.92	- 0.96	77	(유보)	-	-	-
29	유기화합품	- 0.97	- 1.00	- 0.99	78	납	0.66	0.98	0.65
30	의료용품	- 1.00	- 1.00	- 1.00	79	아연	0.96	0.94	0.30
31	비료	- 1.00	- 1.00	- 1.00	80	주석	- 1.00	- 1.00	- 1.00
32	염료,페인트	- 0.99	- 0.99	- 0.98	81	기타금속	- 1.00	- 1.00	- 1.00
33	향료,화장품	- 1.00	- 0.99	- 0.91	82	금속공구	- 1.00	- 0.88	- 0.92
34	비누,왁스	- 1.00	- 1.00	- 0.99	83	금속제품	- 0.99	- 0.89	- 0.97
35	단백질,전분	- 1.00	- 1.00	- 0.95	84	기계류	- 0.28	- 0.96	- 0.87
36	화약류,성냥	- 1.00	-	- 0.85	85	전기제품	- 0.90	- 0.90	- 0.78
37	필름,인화지	- 1.00	- 1.00	- 0.99	86	철도차량	- 0.99	- 1.00	- 1.00
38	화학공업제품	- 1.00	- 0.99	- 0.99	87	일반차량	- 1.00	- 1.00	- 1.00
39	플라스틱	- 0.98	- 0.95	- 0.94	88	항공기	- 1.00	-	- 0.43
40	고무	- 0.99	- 0.93	- 0.98	89	선박	- 1.00	0.79	- 0.39
41	가죽	- 0.18	0.32	- 0.59	90	광,정밀기기	- 0.98	- 0.96	- 0.98
42	가죽제품	- 0.97	- 0.86	- 0.91	91	시계	- 1.00	- 1.00	- 1.00
43	모피제품	- 0.18	- 0.89	- 0.14	92	약기	0.55	- 1.00	0.37
44	목재	0.96	0.86	0.85	93	무기화합품	- 1.00	- 1.00	- 0.57
45	코르크	1.00	-	0.14	94	가구	- 1.00	- 1.00	- 0.99
46	조물제품	1.00	0.84	0.26	95	완구운동용구	- 1.00	- 0.94	- 0.70
47	펄프	- 0.41	- 0.86	- 0.76	96	잡품	- 1.00	- 1.00	- 0.98
48	지,판지	- 0.98	- 1.00	- 0.98	97	예술골동품	1.00	0.91	0.84
49	서적,신문	- 0.21	- 1.00	- 0.33					

## <참고문헌>

### <통계 자료>

통계청 [www.nso.go.kr](http://www.nso.go.kr)

통일부 [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http://www.kita.net)

HS code [www.cl24.co.kr](http://www.cl24.co.kr)

KOTRA [www.globalwindow.org](http://www.globalwindow.org)

KOTRA. 『1990-2000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1.

\_\_\_\_\_.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호.

中國人民銀行. 『年報』. 각호.

中國海關總署 編. 『中國海關統計年鑑』. 각호.

### <관련 문헌 및 논문>

문성민. “북한 재정제도의 현황 및 변화추이”. 한국은행. 2004.

안예홍. “7.1조치 이후 북한의 인플레이션 발생 원인과 정책당국의 대응”. 『북한경제리뷰』. KDI. 2005. 9.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카니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_\_\_\_\_. “자립적 지방경제의 재구조화”, 『변화하는 북한 변화하지 않는 북한』 (북한연구학회 2004년 춘계학술회의 발표문).

이영훈. “북한무역 및 남북교역이 북한경제성장에 미친 효과분석”. 한국은행. 2004.

\_\_\_\_\_. “농민시장”. 『북한의 경제』. 한울. 2005.

\_\_\_\_\_.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통일문제연구』. 44호.  
2005 하반기호.

임강택.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의 변화전망”. 통일연구원. 1998.

재중국단동한국인회·재중국단동한국상회. “남·북물류 현주소 및 문제점”. 2005.6.

중국 단동시 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 판공청의 “동북노공업기지의 대외개방 확대에  
대한 실시의견”(제36호 문건)의 후속조치로 나온 보고서. 2005.8.10.

한경비즈니스. 『대전망 2006』. 한국경제신문. 2005.

M. E. Manyin. "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 CRS Report. 2005.6.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http://www.yonhapnews.co.kr)